

리아후나

커버 스토리:

덴마크의 신앙의 초점,
38쪽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다섯 가지 개념, 10쪽

문신과 선교 사업, 18쪽





덴 마크 코펜하겐 성전은 프레데릭스베르
와드의 팀 옌슨 감독과 그의 가족(앞 표지)
같은 덴마크 회원들, 그리고 소보르그
와드의 데이비드 옌슨과 카밀라 혼슬렛(위) 같은 젊은
회원들의 삶에서 신앙의 초점이 되어 왔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러, 러셀 엠 넬슨, 델리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리,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꾸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빅터 디 케이브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란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새나 버틀러,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빈, 앨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새라 알 포터,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러, 채트 토마스, 플 벤덴버그, 줄리 워털, 킴벌리 웹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편집 인턴 사원: 브리트니 존스 빔, 니콜 시무어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80호, 제 43권, 제 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자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이탈리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기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March 2006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영감을 주는 생각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8 복음의 충만함: 선택의지
- 10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하나님 왕국의 교리를 가르침
- 26 구약의 교훈: 고난 중에 축복을 받음 **보니 디 파킨**
- 29 상호부조회의 소리 **킴 우드버러**
- 32 산들은 기쁨으로 외칠지어대!-제6회 국제 미술 대회 수상작
- 38 덴마크의 조용하고 힘찬 신앙 **돈 엘 설**
- 44 후기 성도의 소리

키어스틴의 도전 **앤젤라 디너**
피해라! **데보라 새토**
나의 개인적인 영웅 **호르헤 데틀레프센**

48 애독자 편지



10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만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지**”, 8쪽: 여러분이 자신의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가족 모두가 벽을 응시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족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토론한다. 기사를 사용해 선택의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사에 언급된, 선택의지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 가지 방법을 역할극으로 표현해 본다.



“**문신과 선교 사업**”, 18쪽: 성전과 육신의 유사성에 대해 토론한다. 바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문신 때문에 그가 직면하게 된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서 다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고난 중에 축복을 받음**”, 26쪽: 각 가족 구성원에게 일시적인 육체적 고난을 정해 준다.(예: 눈을 가린다, 다리나 손 하나를 싸맨다, 귀를 막는다 등등) 장애가 있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두 이야기를 나눈다. 기사를 사용해서 고난을 통해 오는 축복들을 살펴본 후, 가족들에게



복사 금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젠 애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1~2, 4~6)

36 벼랑 끝에서 멀리 떨어져

청소년

- 7 아이디어 목록: 듣고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라
- 18 문신과 선교 사업 새나 버틀러
- 21 포스터: 크고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22 주님의 팀에 속함 알 발 존슨
- 30 짧은 메시지

세 자매 제시 노미 피 패트리아
 집만한 곳이 없다 파피사 엠 투페
 선지자의 영향력
 아타 와이 프레드 오모쿠두
 36 벼랑 끝에서 멀리 떨어져
 질리언 캄벨

30 세 자매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어둠에서 벗어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선지자를 따르라 린다 매글비
- 친6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성경 학자가 됨
- 친8 더 큰 축복 레이첼 시 머독
- 친10 심심풀이: 경전 인물
- 친11 특별한 증인: 누구일까요?
- 친12 그의 짐은 가벼워졌다 산드라 돈 브람홀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구주의 사랑 쉐릴 시 란트
- 친16 주 예수를 닮으려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에리카 실비나 클레베즈타인 드 롤던



친8 더 큰 축복



친16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표지

사진: 돈 엘 설

친구들 표지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시련을 견뎌오셔서 받았던 축복들에 대해 말해 보라고 한다.

“어둠에서 벗어나”, 친2쪽: 방을 어둡게 한다. 가족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삶에 어둠을 초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방에서 찾아보라고 한다. 이 물건들에는 경전, 십일조 봉투, 찬송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사를 사용해서 찾은 물건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더 큰 축복”, 친8쪽: 가족들에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한 친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웨이드의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는다. 각 가족 구성원에게 이번 주에 친절의 행동을 하고 다음 가정의 밤 모임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준비를 해 오도록 격려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선지자, 친4쪽
가르침, 1, 25쪽	선택의지, 8쪽
가정 복음 교육, 6쪽	성경, 친6쪽
가정의 밤, 1쪽	성전, 2, 38쪽
가족 선언문, 10쪽	시련, 26, 44쪽
가족, 2, 10, 22쪽	신앙, 2, 친2, 친12쪽
경전 공부, 친10쪽	아버지, 10쪽
고난, 26, 44쪽	양육, 10쪽
기도, 친12쪽	어머니, 2, 10쪽
다툼, 10쪽	연차 대회, 7쪽
덴마크, 38쪽	영감, 44쪽
동료 집단 입력, 36쪽	예술, 32쪽
문신, 18쪽	정치, 친 16쪽
방문 교육, 25쪽	죄, 21, 36쪽
부부 선교사, 2쪽	지혜의 말씀, 36쪽
브라질, 22쪽	초등학교, 친4쪽
사도들, 친11쪽	친절, 친8, 친14쪽
상호부조회, 29쪽	화합, 30쪽
선교 사업 준비, 18, 22, 30쪽	회원 선교 사업, 44쪽



왼쪽 사진 촬영, 마틴 라이더, 포럼이 포즈를 취함.

영감을 주는 생각

고든 비 힝클리 회장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 안에 신성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높은 영광 보좌를 떠나 지상에 오셨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거하시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구주이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2002년 9월 10일, 러시아 모스크바 모임)

억누를 수 없는 신앙

“여러분의 마음에 억누를 수 없는 신앙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을 걷으시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왔고, 베드로·야고보·요한·모세·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신권과 이 위대한 경륜의 시대를 여는 열쇠를 회복했으며 결국 그것이 진리라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 속에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지구 대회,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 2002년 8월 24일)

가족 관계를 가꿈

“후회할 삶을 살지 마시다. ...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어떤 집에 살았는가, 어떤 차를 몰았는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것 중 어떤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게 될 것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동반자로서 함께 걸었던 사랑하는 여성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 그리고 그들이 충실함과 존경과 사랑과 경의로 여러분을 바라보느냐 하는



여 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가족 관계뿐입니다.

오 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
 중요한 선교사 자격으로
 봉사하고 있는 은퇴한
 남녀는 약 5,300 [현재
 5,800] 명입니다.



원짜: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오른쪽: 사진 촬영, 데이비드 스톨와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가족 관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우리의 선한 아내들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유타 주 플래젠트 그로브 모임, 2003년 1월 18일)

훌륭한 여성, 훌륭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여성 여러분, 훌륭한 여성이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친절하고 고상하고 관대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으로 강화시키십시오. 그들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들이 매우 어려운 이 시대에서 성장하는 동안 세상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과 격려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떠받쳐 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회원이 아닐지라도 친절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이 죽기 전에 교회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참아야 할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모임, 2002년 10월 25일)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영원으로 갈 때, 여러분은 모든 재산 중 동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영혼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과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자메이카 킹스턴 모임, 2002년 5월 15일)

가정에 더 큰 사랑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더 큰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부모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으로 이끄십시오 ... 그렇게 하신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도 아래 성장한 그 소중한 자녀들에 대해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드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트리니다드 포트 오브 스페인 모임, 2002년 5월 20일)

고귀한 신권

“이 날은 베드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남성이 지닐 수

있는 고귀한 신권이 지상에 있게 되리라고 예언했던 그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가질 때 무엇을 가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통치 체계 안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직분에 따르는 업무들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권은 여러분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권능과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아버지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입니까? 저는 이 위대한 축복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우크라이나 키예프 모임, 2002년 9월 9일)

교회에 충실함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의 진리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에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그분들의 사업임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의미에서든 불충실함을 나타내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지지하십시오. 교회를 떠받쳐 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일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고 성실한 후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자메이카 킹스턴 모임, 2002년 5월 15일)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이 여러분을 결코 추락하는 길로 이끌지 않으리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충실함으로 따른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위로 향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지역 대회, 솔트레이크시티, 2002년 5월 5일)

충실하고 진실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선한 시민이 되십시오. 충실하고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훌륭한 교회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훌륭한 후기 성도 그룹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일본 스테이크 대회 위성 중계, 2004년 11월 6일)

부부 선교사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 중요한 선교사 자격으로 봉사하고 있는 은퇴한 남편은 약 5,300[현재 5,800]명 입니다. 그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름 받은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합니다. 우정을 다집니다. 기술을 나눕니다. 온전한 비이기심으로 자신들을 가르치고 선을 행하는 남성과 여성들을 결코 잊지 않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들은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로 갑니다. 그들의 헌신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실은 계산할 수 있는 이상의 것입니다 ...”

이 교회의 위대한 특성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합니다. 일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진리에 대한 간증은 제 팔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붕대로 감아 둔다면 그것은 약해지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훌륭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놀랍고 훌륭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맡은 일을 성취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실을 맺습니다.”(World Affairs Council,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2002년 6월 12일)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아버지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 위대한 축복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남녀가 들어갈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십시오

성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남녀가 들어갈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주님의 집은 여러분을 정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비이기적이 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의로움을 키워 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헌납된 집

“우리에게 주님의 헌납된 집만큼 성스러운 건물은 없습니다. 오직 후기 성도 성전 안에서만 지상의 소중한 관계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결합으로 보존됩니다. 이 교회를 다른 모든 교회들과 구별해 주는 교리적인 많은 것들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신성한 신권의 권세 아래 주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세계 모든 성전들은 불멸의 확실성과 그 불멸의 왕국에 있는 성스러운 관계의 존속에 대한 이 백성들의 신앙을 보여 주는 명백한 기념비로서 서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성전 기공식, 2004년 8월 22일)

교회의 위대한 힘

“이 교회의 위대한 힘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 가족에 두는 주안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깊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도록 진리와 신앙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모임, 2002년 9월 11일)

순수한 기적

“저는 이 위대한 일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적이라 여기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매우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이 작은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게 된 일이 순수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 저는 이 일이 계속 나아가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이며,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이 교회 회원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우리가 맡은 바를 다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길을 여실 것입니다.”(지구 대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2002년 5월 5일)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존경 받는 세계 지도자가 한 말을 읽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족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세상의 선지자라고 간증한다. 메시지의 여러 부분들을 선택해 읽는다. 가족에게 힝클리 회장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유한다.
2. 가능하다면,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가져온다. 가족 한 명에게 한 곳을 가리키도록 한다.(또는 어디에 있던 관계없이 한 국가의 이름을 말하도록 한다.) 힝클리 회장이 그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메시지에서 찾아 읽는다. 시간이 있으면 이 활동을 반복한다. 힝클리 회장의 메시지는 모든 곳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3. 종이 조각에 메시지에 나온 모든 제목을 하나씩 적는다. 가족들에게 차례로 종이를 뽑아 제목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한다. 선택된 주제에 관한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나누고, 가족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가족들에게 이 원리들과 관련해 겪은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듣고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라

도 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 스테이크 카포티요 와드와 시몬 볼리바르 와드의 새벽반 세미나 학생들은 연차 대회를 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을 즐긴다.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몇가지 제언이다.

- *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울 준비를 한 후 연차 대회에 참석한다. 금식과 기도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여러분이 배운 점을 필기해 두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 * 가족과 함께 연차 대회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경험에 대해 듣고 배운다.
- *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 세 가지를 적는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지 본다.
- * 연차 대회를 듣거나 그것에 대해 숙고하는 가운데 영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속삭인다면 그 일을 한다.
- * 연차 대회 동안 여러분이 받은 권고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목표를 세운다. 여러분의 목표와 성취 날짜를 일기에 적고 자주 읽는다.

- * 선지자가 말씀하는 일을 하기 쉽게 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 그렇게 하면 연사의 권고를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 여러분이 배운 것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친구와 그것을 함께 나눈다.
- * 성신에 합당하게 살고, 여러분이 대회 동안 배운 것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도로 인도를 구한다.
- *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격려한 일을 주의 깊게 듣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 ... 지”(야고보서 1:22~25)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 * 말씀에서 인용된 참조 구절을 자신의 경전에서 찾아보고 표시한다.
- * *리아호나*가 나오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여러분의 열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 대회 말씀을 읽는다. ■

선택의지



회복된 복음의 기초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에 대해 설명하는 연재 기사

기 독교 정신의 기본적인 신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몰몬경과 후기 성도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다른 복음 진리들과 함께 가르친 선택의지의 개념은 권능이 크고 시사하는 바가 영원한 교리이다.

영원한 원리

우리는 선택의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필수적이다. 선택의지는 모든 지적인 존재의 영원한 속성이다. 그것은 필멸의 출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밝히셨듯이 우리는 전세에서도 선택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리될 수도 없느니라.

“일체의 진리는 하나님이 놓아 두신 영역 안에서 독립되어 있어 스스로 작용하며 또한 모든 예지도 그러하니, 그렇지 아니하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보라, 여기에 사람의 선택의지가 있고”(교리와 성약 93:29~31)

우리는 자녀들의 궁극적 운명을 미리 결정하는 결정론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의 자녀들이 내릴 선택에 대해 완전한 선견지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이러한 선견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거나 경고를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선택의지가 무효화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되기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E. 탈매지(1862~1933)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 아래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 아시며, 처음부터 끝을 보신다. 하나님의 선견지명은 예지와 이성에 기반한다. 그가 내다보는 미래의 일들은 이치에 따라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며,



그분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입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다.”¹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무에서 창조했다고 믿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결점과 약점을 지니도록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약점이나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분은 그분의 영의 자녀들인 우리가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구에 우리를 보내실 뿐이다.

우 리가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가능성은 무한해진다.

정죄가 있나니, 태초부터 있던 것이 그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났으되 그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까닭이니라. ... 그리고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불순종을 통하여 ...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교리와 성약 93:31, 39) 불순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선택의지를 해친다. 첫째, 우리가 빛과 진리를 잃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볼 수 없게 된다. 둘째, 어떤 종류의 불순종은 중독성이 있다. 우리는 극도로 저버리기 어려운 행동들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선택의지를 해칠 수도

있다.

무책임. 사탄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인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후서 28:8)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되지 않으며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것에 대한 결과도 오지 않는다는 사탄의 계속되는 속임을 미묘하게 드러낸다.

선택의지에 요구되는 조건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선택의지에는 네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고 가르쳤다.

1. 전능한 권능에 의해 제정된, 우리가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2. 상반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3.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상반되는 것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4.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²

선택의지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존재하는 법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된다는 것과 같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오는 당연한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도 가져와야 한다. 법은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순종하지 않을 때 형벌을 가져와야 한다.

선택의지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세에 대해 주님은 “그러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모세서 4:3)라고 말씀하셨다. 모반으로 인해 루시퍼는 하늘에서 내쫓겼으나 지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의지를 약화시킨다. 그 목적을 위해 그는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불순종. “보라, 여기에 사람의 선택의지가 있고, 여기에 사람의

선택의지의 축복

우리가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지는 강화되고 증대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때, 그분은 사랑에 찬 모든 부모와 같이 행동하신다. 즉 새로운 기회들과 더 많은 책임들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가능성은 무한해진다. 순종은 항상 더 큰 선택의지와 더욱 많은 가능성을 가져온다. 우리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은 바로 죄이다. ■

주

1. 예수 그리스도, 제3판.(1916년), 29쪽.
2. 물론 교리, 제2판.(1966년), 26쪽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2:10~29 참조.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행하며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 선언문을 주제로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개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초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다 보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반하는 형태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제시된 가족의 참된 역할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감에 의해 세워졌으며 교회의 최상위 단계에서도 운영되는 평의회 제도를 통해 협력하여 가족에 대한 주님의 입장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천명하는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선언문이 나온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선언문의 예언적 통찰력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항하는 전쟁이 얼마나 공공연하고 사악한지 보려면 신문을 읽거나 TV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남녀의 성에 대한 혼란이 만연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의 자녀들이 필멸의 생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영원의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살았습니다. 전세의 대 가족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위한 그들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족으로 살기 위해 이 지상에 오리라는 것과 멜기세덱 신권의 인봉 권능을 통해 영원히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평등하지만
서로 다르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혹독하고 공공연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

“...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결혼이란 자녀를 키우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성인들의 정서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부부 관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은 축복이라기보다 선택의 산물이라고 여겨집니다. 매년 백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과 그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이들 중 약 3분의 1이 혼외 자녀들입니다.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 동떨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때 사회의 기본 단위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가족은 본질적인 역할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사악한 책략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가족에 대해 싸우는

아버지는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또한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부단히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¹

형제 자매 여러분, 대적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전통적인 결혼을 그와 사탄이 다른 생활 방식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곳곳이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언문의 전문을 읽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대적의 공격

가족에 대한 공격은 생명, 특히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생명이 경시되며 생명의 가치가 수시로 바뀌는 편익과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 좌우됩니다. 1950년과 1997년 사이에 약 46개국의 선진국과 9개국의 후진국이 낙태를 합법화했거나 낙태 규제를 아예 폐지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려를 일으킬 것입니다. 매년 전세계에서 약 4,6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추산에 의하면 낙태 권유로 인해 전체 태아 중 4분의 1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키고자 할 때 땅콩 버터에 독을 넣음으로써 교회의 선교사 시스템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역주: 땅콩 버터를 많이 먹는 선교사들에 대한 농담) 태버나클 합창단이 후두염을 앓게 하지 않습니다. 젤로나 짬 냄비 요리와 같이 회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제조 금지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키고 싶을 때, 성별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를테면 자녀들을 부추겨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가 귀찮은 일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가족 경전 공부실천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책략이야말로 가족의 효력과 가정의 존엄성을 훼손시켜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루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부부들은 가정에서

복음 원리를 적절히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서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저활동 회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활동적인 회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무관심 상태에 빠지면 성전을 멀리하고 효과적인 지도자와 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개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완전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 결혼에 의해 결합된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완전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두



스스로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채 주님의 사업을 늦추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정에서 사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루시퍼가 가족의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룰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 선언문을 주제로 삼아

남녀가 맡은 역할이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언문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평등하지만 서로 다르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남자는 신권의 성스러운 의식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부여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는 그분의 영의 자녀들에게 육체를 제공하고 그들을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해 필멸의 생명을 부여하고 양육하는 청지기 직분을 주십니다. 똑같이 성스럽고 중요한 이 청지기

직분들은 지배나 종속의 잘못된 개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의 청지기 직분은 모든 가족, 부모 및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청지기 직분은 의무와 책임, 사랑과 봉사 및 상호 의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지배하려 하고 배우자의 권고 및



감수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는 남자들은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아버지. 선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리와 성약 121편의 권고에 따라 친절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34~36절 참조)

아버지는 자녀 축복을 비롯하여 신권 의식을 집행하고 신권 축복을 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또한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구주의 모범을 따르며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합니다. 아버지는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또한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부단히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교회를 위해 사랑과 열의의 정신으로 봉사하며, 모범을 통해 가족들을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고, 특히 아들들을 합당한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가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뿐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와 인적 재해에 대비한 물리적 보호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덕적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위험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러한 위험의 틈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이 가족을 감리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먹여 주고 놀아 주며, 이야기를 들려 주고 사랑하며, 가족 생활을 이루는 다른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필수적인 양육 및 유대 형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3. 어머니. 선언문은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양육은 사랑, 지지, 유대 형성, 애정, 각 자녀의 고유한 능력을 알아보는 것,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육아 행위를 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는 양육 자체가 자녀를 키우는 특정한 방법 또는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양육은 안정되고 안전한 가정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양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이는 사랑은 그들에게 지상 생활을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전세에서 체험한 사랑과 선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더 정확히 기억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압력은 기혼 어머니들이 부수입을 벌기 위해 가정 밖에서 일을 하도록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주부의 일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²

어리고 의존적이며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끝이 없기 때문에 종종 스트레스를 주곤 합니다. 어머니들은 “양질의” 시간이 “양적인” 시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질은 양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양질의 시간과 양적인 시간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요구 사항에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매우 지혜로운 권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돈, 여행, 결혼, 어머니 직분, 여러 가지 직업

등 온갖 것을 다 가져 볼 것을 권합니다. ...”

“우리가 알고 있듯 한 가지 역할씩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여성은 적절한 시기에 한 가지씩 하며 생애 동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성은 ... 여러 시기에 걸쳐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³

4. **결혼과 가족의 원리.** 우리는 가족 선언문에서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영원한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꾸짖음이나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꾸짖은 후에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자녀가 부모를 원수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고리와 성약 121:43 참조)⁴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자녀들을 방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양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이는 사랑은

그들에게 지상 생활을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전세에서 체험한 사랑과 선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 줍니다.

부추깁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기본적인 필요 사항과 물질적 욕망 간의 차이를 인식한다면,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어머니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 밖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살아 계신 선지자가 이처럼 복잡한 문제에 대해 주신 권고를 늘 명심해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언제나처럼 섬세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견해를 피력하십니다.

“가족의 필요 사항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사실 그런 여성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집, 좋은 차 및 기타 사치품을 사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녀를 의와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고양시키고 격려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사안의 중요성과 자녀들의 성향 및 성숙도에 따라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규칙을 정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규칙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려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징벌과 칭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면 많은 창의력과 인내심이 요구되지만 그 보상은 클 것입니다. 중요한 규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여 자신의 한도를 이해하는 자녀들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더욱 큰 자제력을 발휘하며 국법을 더욱 기꺼이 지킵니다.⁵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일부 규칙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그들이 현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⁶

부모들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영원한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는 각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수 년 전 딸에게 이러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당시 딸은 겨우 네다섯 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들떠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녀는 뭔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아, 그래,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작은 두 손으로 느닷없이 신문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다섯 살 난 아이가 아버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5. **가족 평의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예상하시듯, 부모가 가진 가장 훌륭한 방편 중 하나는 가족 평의회입니다.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가족 평의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의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다툼의 정신이 가정에 침투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가족 평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들이 관찰한 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큰 아이 둘이 결혼과 대학교 진학으로 인해 집을 떠난 후, 남아 있는 아이들 중 큰 아이 둘에게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었으며 그 아이들이 이에 대해 불만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함께 의논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책임을 좀 더 공평하게 분배하여 가정에 가득했던 불만과 긴장감을 해소했습니다.⁷

여러 유형의 가족이 있듯 가족 평의회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가족 평의회는 부모 한 명과 자녀 한 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모 두 명과 자녀 여러 명, 부모 두 명, 또는 형제 자매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평의회는 규모나 구성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찬 동기 부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의를 조성하는 분위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신의 속삭임입니다.⁸

다툼을 극복함

여러분 중 누군가가 가정 내의 다툼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들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정 내에 다툼의 정신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가족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토의하십시오.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1897~1988)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부모끼리 또한 자녀들과 함께 몰문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가정의 모든 사람들 안에 가득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건의 영이 증가하고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커질 것입니다. 다툼의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⁹

기도에는 큰 힘이 담겨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탄탄한 가족을 세우는 데 중요한 개인 및 가족 기도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외에 다른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모이거나 부부이신 여러분이 하루를 마칠 때 함께 무릎 꿇고 손을 잡고서 기도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을 잊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일과에서 그 시간을 빼트렸다면, 바로 오늘

밤부터 다시 일상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모든 곳에 계신 부모들에게 드리는 권고는 간단합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구해 읽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 및 가족을 계시로 전해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십니다. 두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충실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

2003년 8월 19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교육 주간의 영적인 모임 연설에서 발췌



영감에 찬 주님의 인도에 따라 관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성스러운 책임을 매일 이행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 자신의 힘을 증가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의 음성과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신 것은 실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기울인 노력은 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주

1. 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Women of the Church,” *Ensign*, 1996년 11월호, 69쪽.
3. “A Message to My Granddaughters: Becoming ‘Great Women,’” *Ensign*, 1986년 9월호, 18~19쪽.
4. 크레이그 에이치 하트, “Three Essential Parenting Principles,” *BYU Magazine*, 2003년 춘계호, 58쪽 참조.
5. “Three Essential Parenting Principles,” 59쪽 참조.
6. “Three Essential Parenting Principles,” 59쪽 참조.
7. 엠 러셀 벨라드, *Counseling with Our Councils*(1997), 154쪽 참조.
8. *Counseling with Our Councils*, 154쪽 참조.
9. “The Book of Mormon,” *Ensign*, 1980년 5월호, 67쪽.

문신과 선교 사업

새나 버틀러

교회 잡지

아름다운 흰색 성전 밖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의

벽과 경내는 티 없이 깨끗합니다. 현관 근처의 잔디밭에는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화가가 돌아서서 페인트 통을 꺼내 들고 성전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흉하지는 않지만, 그곳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에게 그림을 더 크게 그리고 더 다채로운 색으로 칠할 것을 부탁한 후 수고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 두세요! 여긴 거룩한 성전이라고요!”라고 말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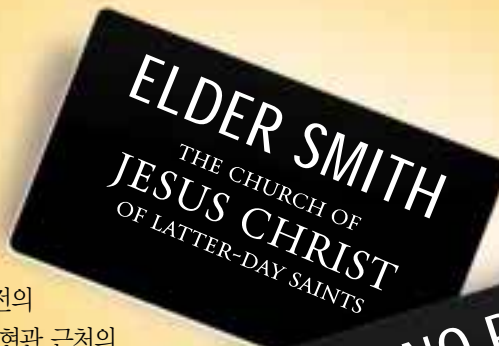
여러분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문신은 육신의 성전에 그린 낙서입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말씀했습니다.

문신은 영구적입니다. 문신은 신체적인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음성에 불순종하여 문신을 새기기로 택한 결과로 인한 영적인 훼손 또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문신이 있으면 선교 사업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비의 실수

바비 콜린즈(가명)는 선교 사업 지원서를 보냈지만 선교사



부름장이 들어 있는 커다란 흰 봉투를 받지 못해 의아해 했습니다. 그는 부름장 대신 교회 선교사부(Missionary Department)에서 보낸 그의 문신에 대한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비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났고, 부모님이 항상 주위에

계시지 않게 되자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때 즈음 바비의 가장 절친한 친구와 사촌이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 일은 저를 약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바비는 말합니다.

바비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문신을 도안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문신을 반대하며 어머니도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신을 새기러 가기 전에 형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형은 몇 가지 좋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상처를 내려 하지?”

하지만 바비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6주 동안 힘들게 일해 700불을 마련한 다음, 한쪽 다리 전체에 커다란 문신을 새겼습니다. “새기는 동안 정말 아팠어요. 피범벅이 되었지요.”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문신 하나를 새기면 더 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쉽게 들어요.” 그는 더 이상 문신을 새기지 않았지만, 복음에 대한 간증이 강화된 후 그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느낀 회한의 고통은 문신을 새길 때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과연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문신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장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걱정되었습니다.

“선교사부에서 온 편지를 받고 겁이 많이 났습니다.”라고 바비는 말합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 일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바비는 선교사부에서 문신을 지닌 선교사 지원자 모두에게

요구하는 일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본래의 지원서에 문신에 대해 간략하게 진술했습니다. 후에 그가 받은 편지는 문신을 새긴 시기 및 이유, 또한 문신을 새긴 신체 부위 및 그림에 대한 설명 또는 사진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문신을 새긴 선교사 후보자가 지원서를 내면, 총관리 역원은 건별로 검토하여 후보자의 선교사 지원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개중에는 탈락하는 후보자도

있습니다.

바비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사임을 감사히 여기고 있으며 이제 주님의 교회의 대표자가 된 그는 문신을 새기기로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에게는 문신이 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문신이 용납되는 지역이나 긴 소매 또는 여성들의 경우 스타킹으로 문신을 가릴 수 있는 추운 지방에서 봉사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문신은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서 봉사하게 될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문신의 내용과 문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판가름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러한 창조물에 사람이나 짐승 모양, 글씨 등을 새겨 넣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신을 새겼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문신은 씻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비싼 경비를 들이고 고통을 겪어야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하면 평생 그것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몸을 그같이 경시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청소년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7쪽.

장래의 선교사들을 위한 권고

“저는 사람들이 힝클리 회장의 권고를 따르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바비는 말합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비는 형이 그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조언을 전합니다. “속죄를 통해 용서 받을 수는 있지만, 상처를 남기게 될 일을 왜 합니까?”

주

1.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7쪽.

보건 의료 전문가의 견해

인나 프로코펜코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자 전문 미학자입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문신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다음은 인나가 전하는 문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신체적 위험

- 문신을 새기는 데 따르는 한 가지 중대한 신체적 위험은 잉크 알레르기입니다. 문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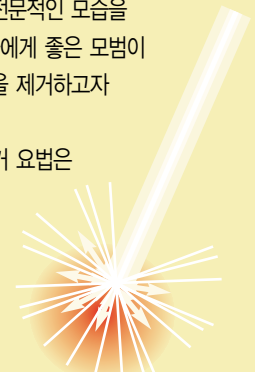


한 직후 또는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잉크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문신이 있는 부위가 부어오르고 붉어지며 가려워집니다. 잉크 알레르기가 있는데 잉크가 혈관에 들어간다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또 하나의 신체적 위험은 혈액에 의한 질병입니다. 바늘과 기타 장비를 살균 소독하지 않을 경우 에이즈 또는 기타 질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이거나 문신을 지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처음에 문신을 새길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 레이저 요법은 보통 흉터를 남기지 않지만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란색 문신이나 노란색 잉크를 사용한 문신은 수술을 하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신 제거 치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문신을 새길 때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문신 제거

- 문신에 대한 후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종류 이상의 것입니다. 인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모두 문신을 새긴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더욱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 문신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 레이저 문신 제거 요법은

죄를 가까이 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88:86 참조)



주님의 팀에 속함

알 발 존슨
교회 잡지

라파엘 퀘이로즈는 배구 네트를 살펴보고 공을 높이 던진 다음 몇 발짝 앞으로 달려 나가더니 점프를 한다. 잠시 중력에 저항하듯 허공에 머물러 있다. 곧이어 배구공을 받아 강 스파이크를 합니다. 공은 무서운 속도로 네트 위를 넘어 내리꽂힌다.

이것을 본 사람이라면 상대 팀 선수가 미사일 같은 속도로 내리꽂히는 공을 어떻게 되받아칠지 궁금해 할 것이다. 놀란 관중은 “우와”하고 감탄의 소리만 지를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몸집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키가 196cm이고 체중이 94kg이나 되기 때문에 자신보다 키가 작고 체중이 덜 나가는 선수만큼 몸이 날렵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의 신장과 체중은 네트 바로 위 수 센티미터 상공에서 배구공을 강 스파이크 하기에 알맞은 수준이며 그의 공은 오직 담력 있는 선수만이 막을 수 있다.

라파엘이 선호하는 운동은 축구일지 몰라도 그가 가장 잘하는 운동은 배구이다. 그는 배구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 실제로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는 전국 고등학교 선수권 대회의 결승전에서 뛰었다. 라파엘은 이렇게 말한다. “결승전 날은 제 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삼 일 중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제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던 날과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던 날입니다.”

브라질 보아 비아젠크 스테이크 자르딤 마사거나 와드의 회원인 19세 청년 라파엘 데 모라이스 퀘이로즈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배우지 못하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는 생활에서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는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기회를 활용하려면 때로는 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힘을 키우기 위한 훈련

라파엘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우선시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 어릴 때부터 복음의 원리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라파엘은 세미나리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죽음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했던 날을 기억한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신에 의해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이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회상하며 그는 미소를 짓는다. “세미나리에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교회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한 집사 정원희 공과 시간 중에 그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준비하기 위해 경전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감독님을 찾아 갔고 감독님은 축복사님께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축복문의 내용에 무척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중요한 책임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저의 축복문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이후로 그는 여러 면에서 자신의 간증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전 공부는 그 중 하나이다. 그는 특히 몰몬경을 좋아한다. “저는 니파이를 존경합니다.”라고 라파엘은 말한다.

가족의 도움

라파엘은 니파이처럼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가족은 그에게 중요하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한 형제 자매인 18세의 가브리엘라를 특히 가깝게 느낀다.

“가브리엘라는 제게 의로움의 모범입니다.”라고 라파엘은 말한다. “그녀는 언제나 교회 표준을 따릅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 즉 새벽 반에 한 번, 저녁 반에 한 번 세미나리에 참석한다고 그는 말한다.



브 라질의
라파엘
퀘이로즈는
발군의 배구 선수로서
그가 속한 주 대표 팀에서
뛰어난 선수이다. 그의
여동생 가브리엘라
(아래)는 그가 좋은
오빠라고 생각한다.





동 로 선수들과
공고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팀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라파엘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의 스테이크 회장인
모자르트 소아레스(위)의
인도를 따랐다. 현재
브라질 벨로 오리존테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라파엘은 이렇게
말한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교회보다 나은 곳은
없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복음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두 개의 반을 통해 다른 관점을 얻게 됩니다. 저녁 반에는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세미나리에서 자주 영을 느낍니다.”

라파엘의 여동생은 생활에서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는지 그에게 가르쳐 준다. “복음의 시각을 가지면 세상의 도전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복음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언제나 유혹을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청소년은 사전에 유혹에 맞서는 방법을 정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운동 선수들이 맞닥뜨리는 유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저는 운동 선수로서 운동 선수들이 하는 일을 늘 하지만 그 중 나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지혜의 말씀을 여기저기 청소년들이 때때로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기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친구들은 제가 택한 생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저의 표준 때문에 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팀에 들어감

라파엘에게 배구를 소개한 것은 그의 친구였다. 2001년에 레시페에 있던 그의 축구 팀 동료가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서 배구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당시 라파엘은 축구 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자신의 신체적 기량이 코치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배구에 대한 잠재적인 재능이

있는 듯했다. “저는 잘 하게 될 때까지 열심히 배구를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전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배구를 잘 하게 되었다.

그는 학교를 대표하여 레시페 시 선수권 대회에 참여한 후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시합인 브라질 북부 지역 선수권 대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국 고등학교 시합 준비를 위해 빠르남부코 팀에 입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의 팀은 결승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합에서 이겼다. 그는 경기의 승리를 증명하는 메달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배구 선수로서 저는 한 팀의 일원이 되어 시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득점을 위해 서로 방어해 주고 어시스트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에게 주님의 팀의 일원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교회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늘 살펴볼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교회보다 나은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 사업에 나가는 것입니다.”

라파엘은 선교 사업을 위해 대학교 체육 장학금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여러 학교에서 그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고 그는 그 중 한 곳의 장학금을 받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 시점에서는 배구 시합을 하는 것보다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한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동에서 거둔 성과 못지 않게 선교사로서 더 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주님의 지도를 받아들인다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나님 왕국의 교리를 가르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받는 축복: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경전과 후일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하여 복음의
교리를 배우는 것을 돕는다.

왕국의 교리를 어떻게 배우는가?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의무는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영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읽고 공부할 때
영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진실함을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여 일상 생활에 적용시킬 때,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빛과 진리를 받기
위해 더 잘 준비하게 됩니다.”(“주님의
놀라운 계시,” *리아호나*, 1998년 5월호,
32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저는 [경전
연구가 의무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전을 읽을 때 마음이 깨우침을 받고 영이
고양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성한 생각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The Light within You,”
Ensign, 1995년 5월호, 99쪽)

상호부조회의 일원으로서 가르치는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1895~1985):

“예지와 빛과 지식은 ...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매들에게 준 약속의
일부입니다. ...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초등회, 상호부조회,
성찬식,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약속이
매일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우리는 모든
자매들이 학교, 개인 공부, 또한
상호부조회를 통해 빛과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Relief Society—Its Promise
and Potential,” *Ensign*, 1976년 3월호,
4쪽)

교리와 성약 88:77~78, 118: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가정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이지만,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르침과 학습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상호부조회의 지도자이자
교사인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교사들을 가르칩니다. 즉 어머니,
미래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육자들을 가르칩니다. ...

상호부조회에서 효과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질 때, 자매들은 영적으로 고양되고
그들의 생활에 복음의 원리를 보다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가르침이란
자매들을 알고 영에 의지하며 자매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Teaching: An Entrance to
the Heart” [상호부조회 일반 공개에서
행한 연설, 2004년 가을] ■





고난 중에 축복을 받음

보니 디 파킨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만 일 나의 형제나 자매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면, 나는 분명 너무나도 화가 나고 커다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실제로 노예로 팔아 버렸던 옛적의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후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고난의 세월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힌 후 그들이 염려하는 바를 파악하고 한 말을 보면 그의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그가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세기 45:5)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고난 가운데 기회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중에 노예로 팔려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회를 인식합니까?

1997년 나의 남편은 영국 남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7월에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많은 일들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몇 번의 선교사 지역 대회들을 시작하면서 나는 선교사들을 알게 되기를 바랐으며 그들도 나를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7월 11일 우리는 메이드스톤 스테이크 센터의 예배실 연단에 앉아서 75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어지러운 증세가 엄습해 왔습니다. 나는 남편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속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남편은 내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신속히 두 명의 선교사를 불러서 나를 부축해 모임에서 나가 한 공과 방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첫 대면입니까! 매 분 간격으로 증세가 심해져서 저는 저의 남편과 충실한 선교사에게 신권 축복을 받았고, 그 후 선교 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자동차가 길에서 덜컹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곧 평형 감각을 완전히 잃었으며 한 쪽 귀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내 귀에 혈전이 생긴 것 같으며 평형 감각이나 오른 쪽 귀의 청력이 영구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서웠고 걱정이 되었으며 또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남편과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음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만일 듣지 못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게 된다면 어떻게 이 위대한 일에서 주님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도 없었던 나는 전적으로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내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부름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믿으면서 나는 나를 낮게



고난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명의 선교사가 나를 부축해 모임에서 나가

한 공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기적을 얻기에 충분한 신앙이 내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나의 평형 감각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귀의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귀는 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일로 더욱 낙담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3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인가? 요셉과 달리 나는 이 고난을 좋은 일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신들의 곡식 자루 속에 든 돈을 발견하고 어떤 악한 계략일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창세기 42:28) 하고 의아해 하던 요셉의 형들과 같았습니다.

나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주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으며(이더서 12:27), 그리하여 “너희가 고난 받은 모든 일들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며 내 이름의 영광이 되”(교성 98:3)게 하실 수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9년이 지난 후, 내 자신의 더욱 깊어진 통찰력에 의해 나는 영국에서 겪은 고난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적의 요셉처럼 저는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먼 땅에서 쇠창살이 아닌 어지럼증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동료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로한 부부 선교사들이 선교 본부에 오셔서 도착하는 선교사들을 맞이하고 떠나는 선교사들을 전송하는 나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 쪽 귀로만 들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 듣기가 극히 어려울 때가 있으며, 특히 그들이 들리지 않는 귀쪽에 더 가까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저는 필연적으로 더욱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더욱 잘 파악하고 그들이 느끼는 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청력을 잃음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기적에 의한 치유가 항상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때로는 그 정반대가 맞습니다.

내가 이 경험을 다시 겪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이 힘든 경험, 또 비슷한 다른 경험으로 인해 커지고 발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성장은 왔지만 저의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잔재는 흔히 뒤에 남곤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2년 2월 나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책상 맞은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보니,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선교 지역에서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쪽 귀로 들을 수 없긴 하지만, 건강 상태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다른 쪽 귀의 청력은 어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 좋습니다 ”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보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현재 제가 가진 부름을 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해서 채우는 원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교성 122:7 참조). 그러한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개를 돌리거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고 겸손한 노력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이더서 12:27 참조) ■

상호부조회의 소리

김 우드버리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우 리 독신성인 와드의 자매들이 상호부조회 합숙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인 오두막집에 갓 요리된 베이컨 냄새가 가득히 퍼졌습니다. 내가 짧은 밤 잠에서 깨어나려고 애쓰면서 아직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자매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부엌에 모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또 웃는 친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나는 이 멋진 여성들에 대한 큰 사랑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게 바로 상호부조회의 소리야”라고 생각하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상호부조회를 떠올리게 하는 다른 모든 좋은 소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간증을 나누는 자매,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가 되는 많은 자매들의 목소리, 방문 교사들이 전하는 애정 어린 공과, 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할 때 부드럽게 웅얼거리는 재봉틀 소리,

그리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눌 때 흘린 눈물—이러한 것들은 여성들을 위한 주님의 조직을 떠올리게 하는 수많은 좋은 소리 중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오두막집에서 나의 자매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거기에 누워 있을 때 나는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여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로서 우리가 다 같이 자매됨을 즐거워하는 소리입니다. 내게는 그것이 참으로 상호부조회의 소리입니다.

■ 김 우드버리 자매는 유타 바운티풀 동 스테이크 바운티풀 제55와드의 회원이다.



세 자매

제시 노미 피 패트리아

침례 받은지 일 년이 지난 후 나는 선교사 부름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몇 명의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첫번째 친구는 동반자였던 로 자매였는데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온 개종자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언어를 몰랐고 그녀도 필리핀 언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낸 16일은 내 생애에서 가장 영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한 특별한 사람, 즉 선교사 훈련원장님의 부인이신 루다 리 코트렐 자매님 덕분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자매님은 언제나 웃는 얼굴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셨고 말과 행위로 내게 자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 로 자매님과 나는 코트렐 자매님께 기념으로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고, 자매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릴 만한 적당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반자는 코트렐 자매님을 위해 노래를 한 곡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집만한 곳이 없다

파피사 엠 투페

청년반을 졸업할 무렵, 나는 교회가 정말로 참된지 알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그 시기는 내게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의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날 어머니는 내게 집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아 놓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나는 부딪혔던 일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꾸짖기 시작하셨고 나는 꾸중을 들을수록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대부분의 찬송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코트렐 자매님은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단한 선물에 대해 말씀드렸고 자매님은 기쁘게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노래를 들어주셨습니다. 로 자매님과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세 사람의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반자와 나는 사랑하는 코트렐



점점 더 완고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는 핫김에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고 대적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다음날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둘러 짐을 꾸리고 났는데, 갑자기 칠십인 정원회의 케네스 존슨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쾌활한 우리의 교사님, 리오니 에이 아이오노 자매님이 가르치던 세미나리 반에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곁에 놓여 있던 세미나리 책을 집어 들고 내가 적어 놓은 말을 읽었습니다-“집 만한 곳이 없다.”

나는 내가 쓴 편지를 집어 휴지통에 던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던 그 시기에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가 직면한 유혹들로 인해 자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세미나리에서 배운 가르침들이 참되고 정직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선한 가르침으로 가득한 복음 안에서 나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참됩니다. ■

파피사 엠 투페 자매는 사모아 우폴루 팔리시우 스테이크 파시투 우타 와드의 회원이다.

자매님이 우리의 노래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어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모든 차이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이 내게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영은 또한 내게 무엇이 어떤 이유로 우리 세 사람을 이 곳에 데리고 왔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 자매님과 저를 선교사 훈련원으로 데려온 것도 복음입니다. 코트렐 자매님을 그처럼 훌륭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만든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을 우리 세 사람에게 준 것도 복음입니다. ■

제시 노미 피 패트리아 자매는 필리핀 바콜로드 북 스테이크 바콜로드 제5와드의 회원이다.

선지자의 영향력

아타 와이 프레드 오모쿠두

내가 1994년 교회에 가입한 이래, 많은 교회 회원들이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훌륭한 영향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만난 적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분의 영감 받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분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일 대 일로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인생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제일회장단 메시지(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쪽

참조)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적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에서 내 장래의 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훌륭한 날들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신 선지자의 권고에 용기를 얻어, 나는 일 년 동안 컴퓨터 공학 기술 대학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일 년 기간의 국가 청소년 서비스(National Youth Service)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중이었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저는 컴퓨터 시스템을 수리하고 설치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청소년 서비스에서 일 년을 보낸 후 성공적으로 지금의 첫 직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친구들 및 친척들과 더욱 가깝게 지냅니다. 그들은 이제 나의 표준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내가 선지자의 권고를 실천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

아타 와이 프레드 오모쿠두 자매는 나이지리아 호스 지방부 바우히 지부의 회원이다.



산들은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제6회 국제 미술 대회 수상작

이 것은 11개국에서 후기 성도들이 보내온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다양한 소재와 양식을 아우르지만, 각 작품 모두 후기 성도들의 믿음과 역사와 삶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들은 교리와 성약 128편 23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창조물 안에 있는 힘과 기쁨을 구현한 것이다. “산들은 기쁨으로 외치며, 너희 모든 골짜기는 크게 외칠지어다. 너희 모든 바다와 육지는 너희의 영원하신 왕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라. ... 숲들과 들의 모든 나무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너희 견고한 바위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지어다. 해와 달과 새벽 별들은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그리고 영원한 창조물들은 영원무궁토록 그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맞은 편 왼쪽: 엘리야여,
오라, 류바 프루삭(체코
공화국). 맞은 편 오른쪽:
성임, 로렌스 오
에히기아토르(나이지리아).
왼쪽 끝: 돌을 고르는 야렛의
형제, 네이던
플로렌스(유타). 왼쪽:
생명의 나무, 마벨 "벨레"
라라(칠레). 왼쪽 아래:
성취된 약속, 테오도리코 피
쿠마군 2세(필리핀). 아래:
계명을 지킴에 있어 굳건함,
친 타이 칭(타이완).



오른쪽: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호세 리베로스(칠레).
 아래: 리하이의 꿈, 다마리스
 푸가 데 가르시아(과테말라).
 오른쪽 끝: 우리의 거룩한
 유산, 마리아
 마카로바(러시아).





왼쪽 끝: 이사야의 승천,
울프 바시(체코 공화국). 위:
아르메니아 바늘로 뜬
레이스, 멜바 힌도이안
엠라지안(아르메니아). 왼쪽:
나와 함께 노래해, 레이-잉
첸(타이완). 아래 왼쪽:
산들은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브렌트 레이콕(캐나다).
아래: 시현, 우골리니
발레리아노(이탈리아).



바깥공에서 멀리 떨어져

내가 파티에 가서
지정 운전자가
되어야 할까?

질리언 캠벨

여자
애가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말을 그
곳에서 보내면 딱일거야! 내

생각엔 우리 반 애들이 모두 함께 파티를
하면 서로 훨씬 더 가까워질 것 같아. 제레미 로버츠 같이 말이야.
개는 취했을 때 정말 재밌어.”

나는 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뻘뻘 쳐다 보았습니다. 더 놀랐게도 다른 아이들도 모두 합세하여

고 등학생
시절 어느
눈 내리는 밤,

나는 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
있었습니다. 깔깔대는 여자아이들이 거실 여기
저기 드러눕거나 엎드려서 잡담을 하며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무리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이번 주에 바깥채에서 이사 나갔단다.”라고 한



중양이 더 안전함

“지혜의 말씀이 지닌
정신의 일부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금하신
것들 외에도 모든 것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

“청소년이었을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가서 비행 접시를 탔습니다. 그것은 모양이 거꾸로 된 접시 같았는데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비행 접시가 속도를 내자 원심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 가까이 있는 친구를 붙잡는 바람에 둘 다 비행 접시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곧 중앙에서는 원심력이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 접시는 계속 돌았지만 저는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꽤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붙잡게 되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에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 109~110쪽.

함께 파티를 하면 좋을 친구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음 속으로 얼음같이 차가운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벌써? 내 친구들이? 음주를?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모두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케이크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같 거야. 하지만 난 그저 지정 운전자라 될 생각이야. 그다지 마시고 싶지는 않아.” 그 친구는 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질리언, 너도 와도 돼. 우리 서로 같이 있지!”

나는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갈 수도 있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도록 내가 봐 줄 수도 있을 거야. 가서 술을 마시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모두와 함께 놀 수 있어.”

“좋아!”라는 말이 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좋고말고! 나도 갈 거야. 우리가 모두를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야.”

모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다음날 저녁,

나는 스테이크 청소년 노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하고 그분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유혹에 굴복하게 하려는 압력이 참으로 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나의 최상의 권고는 이것입니다. 벼랑 끝에는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파티에 가서 술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정 운전자로서 파티에 가지 마십시오. 아예 그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일단 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갑자기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나 갑자기 큰 도덕적 문제를 갖게 된 사람을 상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첫발을 내딛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처음으로 술을 마시도록 유혹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스스로를 처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지혜의 말씀과 관련된 문제를 갖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보증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파티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술이 나오는 파티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술을 마시지는 않았겠지만 파티에 갔더라도 고등학교는 벌임 없이 졸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벼랑 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주님의 지침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

질리언 캠프 자매는 브리검 영 대학교 제16스테이크 BYU 제43와드의 회원이다.

덴마크의 조용하고 힘찬 신앙

이곳의 교회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코펜하겐의 새로운 성전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기를 구하는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신앙의 초점을 제공하고 있다.

돈 엘 설
교회 잡지

올레 라운페테르센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다. 침례는 코펜하겐의 조용한 주거 지역에 있는, 193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 장로(1872~1952)에 의해 헌납된 집회소인 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에서 집행되었다.

이후 젊은 올레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이 건물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와 또 다른 많은 덴마크 회원들이 이 건물에 대해 지닌 좋은 기억은 이 건물이 새롭게 수리되어 2004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으로 헌납되었을 때 더욱 감미로운 것이 되었다.

이 건물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에 깃든 위엄을 어느 정도 느끼는 듯하지만, 교회 회원들은 왜 이 곳이 거룩한 장소인지 이해하고 있다. 지나가던 회원이라면 성전 바로 곁에 있는 작은 안뜰로 걸어 들어가 단순히 앉아서 성전의 높다란 창문들과 천장을 응시하며 영원에 속하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올레 라운페테르센 형제는 현재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세 시간 떨어진 유틀란트 반도에 있는 덴마크 오르후스 스테이크 오르후스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자국의 수도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생활 리듬이 다소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에 대해 생각했다. “이곳 코펜하겐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더 가까이 다가감

덴마크 회원들은 성전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할 많은 이유를 발견했지만, 그러한 이유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귀착된다.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 로스킬데 와드의 티네 안데르센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영이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귀환 선교사인 티네는 두 성전 봉사자의 딸이다. 티네의 아버지 닐스는 성전이 헌납되기 전 건물의 일반 공개 때 안내자로서 봉사하는 동안 가졌던 기회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방문객들이 계속 이어지던 것을 회상하며 감격에 사로잡힌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선교 사업을 해 왔지만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건물의 일반 공개 동안 무려 이만 오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보았다. 안데르센 형제는 그 사람들 중 유럽 전역에 걸쳐 많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는 데 관여했던 한 건축가를 기억한다. 그러나 그 건축가는 성전 안에서 받은 느낌으로 인해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방식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는 건물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에 대해 묘사하고자 애써 노력할 뿐이었다.



영적인 것을 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덴마크 회원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번영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족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것이다.

티네 안데르센은 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친구는 젊은 여성으로서 남자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은 덴마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 친구는 그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티네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집착한다.

복음은 “다른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라고 티네는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맞은편: 올레 라운페테르센 감독, 오르후스 와드, 덴마크 오르후스 스테이크. 위: 덴마크 코펜하겐 성전. 왼쪽: 마리안느, 닐스, 그리고 티네 안데르센,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





위: 토마스 링하임(왼편), 아내 하이디(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 오른쪽: 오를라 로데 닐슨(맨 위)과 키르스텐 보크훈코, 덴마크 오르후스 스테이크.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다”

부모로서는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코펜하겐 스테이크 프레데릭스베르 와드의 감독인 팀 옌슨 형제는 말한다. 그와 그의 아내 카렌은 사춘기 직전의 나이인 두 딸, 피닐라와 미에의 부모이다. 옌슨 감독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성신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격의 없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옌슨 자매는 자주 주님께 나아가 인도를 구한다고 설명한다. 옌슨 자매는 어느 날 큰딸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때를 회고한다. 피닐라는 그 효과를 느꼈고, 나중에 그 때 자신의 마음 속에 임했던 사랑이 가득한 속삭임에 대해 간증했다.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로 인해, 부모들은 그들에게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고 옌슨 감독은 말한다. 그의 아내는 이 점을 강조한다. “자녀들에게 그들이 믿는 바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회적 상황은 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16세를 음주 허용 연령으로 하는 법률이 최근에 와서야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부모들은 청소년들에게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시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론 하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찍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게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는 잘 통하지 않는 이론이다. 또 다른 예로는, 1970년부터 외설물이 합법화되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며 한 세대가 자라났다.

카렌 옌슨 자매는 말한다. “여러분의 딸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존중할 것과 육신이 성스럽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옌슨 감독은 덧붙여서, 젊은이들은 순결의 법을 알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복음 교리가 일반적인 관습과 다른 경우 자녀들은 “주위의 세상이

행하고 있는 것을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 링하임은 코펜하겐 스테이크 알리외드 와드의 전 감독이며 그의 아내 하이디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네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의 여덟 명의 자녀가 있기에 그들은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부모는 가르침의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용해야 한다고 링하임 자매는 말한다. 그 이유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두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링하임 자매는 매주 성전에 참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만 보더라도 저는 제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회에서 “그처럼 소수가 된다는 것은 교회 회원들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링하임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옹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후기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 솔직히 말할 때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깊은 뿌리

덴마크의 교회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선교사들은 1850년에 처음 도착했다. 물문경은 처음에 영어로 출판된 후, 두 번째로는 덴마크어로 출판되었다(1851년). 그러나 초기,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년 동안 많은 개종자들이 유타로 이주했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로서 그 역사와 지리와 상업이 모두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덴마크 사람들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쉽게 다른 나라에 이끌려 간다. 종교를 사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과 함께, 이러한 요인들이 지난 수십 년 간 교회 회원 수가 더디게 증가하는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다. 현재 인구 550만의 나라에 약 4,500여명의 후기 성도가 있다.

그러나 오래된 회원들의 영적인 경험과 지도자로서의 경험은 덴마크의 교회에 값진 자원이 되고 있다.

1956년에 침례 받은 오를라 로데 닐슨은 오르후스에서 두 번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그 후 지부는 와드가 되었다. 또 다른

오랜 회원인 키르스텐 보크혼코는, 닐센 형제와 현재 고인이 된 그의 아내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뒤에서 조용히 선을 행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닐센 가족은 가족 역사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자 자신들의 여가 시간 중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서른 명 이상의 회원들을 도와 그들의 가족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닐센 형제는 지금도 자료를 모으기 위해 거의 매일 시립 문서 보관소에 간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입했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느꼈다. 침례 받은 날 그는 행복한 나머지 집으로 오는 동안 내내 노래를 불렀다. “침례 받은 이후로 저는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52년에 침례 받은 보크혼코 자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교회가 닿을 내리도록 도운 사람이다. 보크혼코 자매는 모든 보조 조직의 지도자 부름에서 봉사했으며 또한 교회 자료를 번역하는 번역사로 봉사했다. 오르후스 와드의 스물다섯 명의 어린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 표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찾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보크혼코 자매는 어릴 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보크혼코 자매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보크혼코 자매가 자랄 때 사람들은 그녀의 표준이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었고 그

표준을 존중해 주었다.

회원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도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오르후스의 카린 메셀은 남편 에스퍼를 직장에서 만났다. 이들이 2001년 결혼했을 때 그는 회원이 아니었다. 이제 에스퍼는 아내의 모범을 생애의 큰 축복으로 꼽는다. 부분적으로는 이 이유 때문에 그는 2003년 침례를 받았고 그들은 2004년 코펜하겐 성전이 헌납된 지 두 달 남짓 지났을 때 그곳에서 인봉받았다.

에스퍼는 가족의 중요성을 포함한 복음의 표준과 가치를 받아들였다. 부부로서 메셀 내외는 자신들에게 자녀가 있을 때 카린이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들을 희생하는 편을 선택했다. 에스퍼는 말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집인가, 아니면 카린이 집에 있는 것인가?”

코펜하겐의 요한과 리자 코흐 부부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따르는 장기적인 보상에



위: 코펜하겐 성전의 옆 모습. 아래: 팀 멘슨 감독, 아내 카렌, 딸들 퍼닐라(왼쪽)와 미에, 프레데릭스베르 와드, 코펜하겐 스테이크.





위: 에스퍼, 카린 메셀, 안네 크리스티나 라르센(오른쪽), 덴마크 오르후스 스테이크. 맨 위 오른쪽: 브리타(왼쪽)와 키엘 라스무센, 코펜하겐 스테이크, 상자에는 덴마크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 주는 조각이 새겨져 있다.

대해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코흐 부부는 1968년 첫 결혼한 부부로서 교회에 가입했으며, 교회 안에서 일곱 자녀를 키웠다. 2004년 그들이 코펜하겐 성전의 일반 공개 기간 동안 안내인으로 봉사할 때, 그들의 아들 중 한 명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한 사람이 성전을 보러 왔다. “저는 올 수밖에 없었어요.”하고 그는 설명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티안을 알고, 이렇게 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흐 내외는 여러 해 전 처음으로 스위스에 있는 성전에 갔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로 일함으로써 가족을 위한 모범을 보였는데, 당시 이는 스톡홀름까지 여덟 시간 동안 여행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들은 집 안의 한 쪽 벽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두었다. 그들은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강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그리고 세미나리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모든 자원을 다 활용했다.

국외로 여행해야 하는 일이 여러 해 계속된 후, “이처럼 가까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라고 코흐 자매는 말한다. 남편은 2001년 코펜하겐 스테이크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는데, 성전이 생겼다는 것은 회원들 가운데서 영성이 자라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코흐 내외는 성전이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 일반 공개시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보는 동안 인봉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부부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묻곤 했습니다.”라고 코흐 형제는 말한다.

독신 생활

덴마크에서 독신 회원들의 목표는 물론 성전 결혼이다. 그러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다른 후기 성도 독신들과 사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초청 대상을 넓혀서 오르후스 스테이크와 스웨덴 회원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코펜하겐의 청년 독신 무도회나 파티에는 보통 이십에서 삼십 명이 참석한다고 티네 안데르센은 말한다. 스웨덴 말피는 가깝다. 코펜하겐의 고층 건물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농인 좁은 발트 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두 나라의 언어는 유사하지만, 통상 이러한 무도회에서의 대화는 많은 유럽인들이 공용어로 쓰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언어가 무엇이든 간에 안네 크리스티나 라르센은 쉽게 어울릴 수 있다. 모국어인 덴마크어 이외에도 안네는 독일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는 동안 침례를 받은 안네는 한동안 과테말라에서 일하다가 워싱턴 디시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현재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네는 종교 교육원 강의를 듣고 있다.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은 두세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네는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을 정제시켜 놓지는 않았다. 안네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영적 목표를—특히 성전이 가까이 있는 지금—성취하고 있다. 성전에 가면 “새로운 힘과 평안, 그리고 통찰력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안네는 복음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그 기초입니다.”

기초를 세움

1975년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은 브리타 라스무센 자매는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얻었다고 말한다. 처음 상호부조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라스무센 자매는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언제나 그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라스무센 자매는 학생 시절 처음 만났던 한 그룹의 친구들과 45년째 교제를 해오고 있다. 라스무센 자매는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하도록 그들을 초대했는데 이 때 라스무센 자매와 그 남편은 안내자로 봉사하고 있었고 라스무센 자매는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 “그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라고 라스무센 자매는 회고하면서 자신이 말한 것이



위: 코펜하겐 성전의
첨탑. 아래: 요한과 리사
코흐, 성전 봉사자들,
코펜하겐 스테이크. 그는
전 스테이크 회장이다.

언젠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피력했다.

그녀의 남편 키엘은 처음에 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키엘은 종교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법에 더 익숙했지만 성신의 증거를 통해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능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엘리사벳 안데르센 자매는 십대 후반이며
학교에서는 유일한 회원인데, 아직 자신에게
간증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 “때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간증을 갖기 위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다. 아버지인 옌스
안데르센 형제는 덴마크 코펜하겐 스테이크의
회장이다. 엘리사벳의 집에서는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을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실한
모범을 보이시고, 엘리사벳은 자신의 간증을
강화시키기 위해 배운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믿음 또는 생활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친구들과 함께 복음 진리를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신앙, 기도, 회개, 그리고 순종과 같은
기본적인 복음 원리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고 안데르센 회장은 말한다.
“생활의 기쁨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저의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 제가
느끼는 기쁨은 영원한 시각에
기반합니다.” 하고 그는 설명한다.
“교회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가족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실천하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성전은
그러한 영원한 시각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모든 연령층의 회원들이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그의 딸 엘리사벳도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러한
것을 느꼈다. “평화예요. 그와 같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다른 곳은 거의 없어요.”

성전 봉사는 모든 회원을 위한 목표임을
스테이크와 워드 지도자들이 가르친다고 안데르센
회장은 말한다.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데서
비롯하는 영성의 성장이 덴마크에서 교회 회원의
수가 늘어나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선교 사업은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
개심이 이루어지는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개심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한 능력과 열망을 갖게
된다. ■



키어스틴의 도전

앤젤라 디너

우 리 둘째 아이 키어스틴은 약 30년 전 난산을 통해 낳은 아이였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들은 심각한 심장 이상을 발견했다. 키어스틴은 신속히 아동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키어스틴의 자그마한 몸 위에 손을 얹고 남편은 키어스틴에게 생애 최초의 신권 축복을 해 주었다. 그것은 키어스틴이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하는 선물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종종 유리창 앞에 서서 중환자실 안을 들여다보며 이 작은

여자아이가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키어스틴을 만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이 아이를 위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기를 병원에 맡긴 채 퇴원했을 때, 남편과 나는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키어스틴을 위해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주님과 의사들을 믿어야만 했다. 그 당시 가장 가까운 성전은 함부르크의 우리 집에서는

키 어스틴은 심장 이상으로

출생 후 중환자실에 있었다. 우리는 키어스틴이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스위스에 있었지만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그 곳에서 힘을 얻어야만 한다고 느꼈다. 우리는 딸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쏟았다.

한편 의사들은 당시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한 심장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증세가 있는 환자의 예상 수명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5주 후, 우리는 키어스틴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아이의 몸은 고통 중에 있었을지라도 영은 밝고 명랑했으며 기꺼이 배우고 싶어했다. 또한 우리는 아이가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며 오빠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어스틴이 네 살이었을 때 몸 상태는 악화되었고 아이는 점점 더 허약해져만 갔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을 방문한 후에 우리는 얼마 전 의사들이 키어스틴의 이상 증세처럼 복잡한 심장 이상을 고친 적이 있는 뮌헨의 한 심장 센터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다. 의사들은 심실을 줄이고 구멍들을 막고 양쪽 판막을 고치는 등, 사실상 심장의 모든 것을 바꿔야만 했다. 참으로 예술의 경지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키어스틴이 매우 걱정되었고 와드 전체가 우리와 함께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의사들은 1980년 5월 21일 키어스틴을 수술했고 아이가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수술한 심장 판막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응혈이 뇌 속에 들어가 몇 분만에 키어스틴의 오른쪽 전신이 마비되었고 아이는 언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키어스틴의 눈은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다. 나는 남편과 내가 뮌헨의 공중전화 박스 안에 서서 감독님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와드의 수많은 회원들로부터 위로의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또한 금식을 통해 키어스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후 수년간 물리 치료가 이어졌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마다 기뻐했다. 키어스틴이 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의 상태는 일반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키어스틴은 사용할 수 있는 왼쪽 손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내는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다. 오른쪽 다리는 더 튼튼해졌고 그녀는 수영과 자전거, 승마를 배웠다. 그녀는 삶을 정말로 사랑했다. 만일 어떤 아이가 키어스틴의 약간 특이한 걸음걸이를 보고 웃으면 나는 키어스틴의 삶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그러면 웃음은 감탄으로 바뀌었다.

키어스틴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와드 회원들도 그녀와 우정을 나누었다. 그 보답으로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 속에서 사는 그녀의 기쁨을 보여주었고 우리 가족 중에서 교회로 가장 많은 친구들을 인도한 사람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키어스틴은 여성 판매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부지런히 받았고 운전 면허도 취득했다. 약간 개조한 차를 몰면서 그녀는 더욱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독신성인 모임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스테이크의 여러 부름을 받고 봉사할 수 있었다. 1999년 그녀는 1년을 휴직하여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했다.

키어스틴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느낀다. 그녀의 조카들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그녀를 매우 사랑한다. 키어스틴은 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탄에 빠질 필요가 없고 명랑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2003년 많은 사랑을 지닌 한 젊은이가 키어스틴의 삶 속에 들어와 점점 더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충실한 후기 성도 가정에서 자라난 귀환 선교사이다. 2004년 8월 그와 키어스틴은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인생의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 중 두 명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 그 누구도 자녀에게 장애가 있기를 바라지는 않겠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며, 역경을 돌파해 싸워야 한다. 성신의 속삭임에 더욱 가까이 귀 기울이게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떤 고난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다. 나는 종종 “너희들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만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지상의 삶은 영생과 비교하면 매우 짧단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로한다. ■

앤젤라 디너는 독일 노이뮌스터 스테이크 랑겐호른 와드의 회원이다.



피해라!

데보라 새토

남 동생과 나는 일을 마친 후 길고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몇 마일을 달렸지만 지나가는 차 한 대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고 잠들지 않기 위해 도로의 지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경사 높은 지대에 있었고 우리가 올라가는 언덕 쪽으로 두 개의 차로가 나 있었다.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로는 하나밖에 없었다. 급경사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의 한 차로는 추월 차로였다.

나는 내리막길에 대해 궁금해졌다. 때때로 경사가 심한 도로에서 대형 트럭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차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트럭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승용차가 그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도로 위에 다른 차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얼마 후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추월 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브레이크가 안 듣는 트럭이라면 느리게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내 차로로 뛰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오른쪽 차로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밤 늦은 시각이었고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차로로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오르막길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 생각이 또 들었다. 나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볼 수 없고 그 차도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피해라!”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갑자기 핸들을 틀어 오른쪽 차로로 들어갔다. 그 순간 언덕에 불빛이 보였고 경적이 울렸다. 동생은 그 트럭이 중앙 차로에서 우리 옆을 지나가는 찰나 잠에서 막 깨어났다. 다음 순간 스테이션 왜건 한 대가 바깥쪽 차로에서 언덕을 넘어왔다. 나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갖길에 차를 세웠다. 나와 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너무나 무서웠다.

너무나 놀라웠다. 나는 성신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한다는 것을 들어봤지만 이 목소리는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나 나는 성신이 정말로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신은 대형 트럭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지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면서 내게 말했고, 오른쪽 바깥 차선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도 내게 말했던 것이다. 내가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자신에게 실망했다. 결국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성신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던 것이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언제나 성신의 속삭임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나는 결코 다시는 성신의 속삭임을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

데보라 새토는 솔트레이크 그레이넛파크 스테이크 학모니파크 와드의 회원이다.

나의 개인적인 영웅

호르헤 데틀레프센

19 72년 11월 그날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을 때 나는 이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되리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13살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학교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이었고 내게는 나와 같은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오스카 이탈리아는 다른 소년들과 달랐다. 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우등생 명단에 올라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조용한 소년이었다.

내가 그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상의 옷깃에는 “저는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지역의 교회에는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회원들은 사람들이 이 배지에 대해 물어보면 가정의 밤과 가족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 배지를 달고 다녔다.

나는 오스카에게 “그게 뭐니?”라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3개월 전에 침례를 받았고 가족 중에서는 유일한 후기 성도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날 쉬는 시간에 그는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물론경을 한 권 주었다. 그는 나에게 모로나이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약속을 읽어 주었고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마음 속에서 뜨거운 느낌을 받아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카는 훌륭한 회원 선교사였고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동네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는 동안 나는 물몬경을 읽어 보기로 했다. 첫 페이지를 거의 다 읽었을 때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전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물몬경이 참된지,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알려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우리 반 친구가 내가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간증했던 것을 느끼리라 생각했다. 몇 분 후 나는 어머니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까 봐 일어서서 학교 갈 준비를 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겐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버스에서 내려 학교 옆 인도에 발을 디디자마자 의심은 사라졌고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도 간단했다.

오스카는 교실 문앞에서 내게 말하러 다가왔다. 나는 “너희 교회의 회원이 될 거야.” 하고 말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 한 명이 듣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 주었다. 친구들은 곧 나를 둘러쌌고 왜 종교를 바꾸려 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고 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 버렸고 나와

오스카만 남게 되었다. 갑자기 나는 굉장한 기쁨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내 친구 오스카가 내가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뜨거운 느낌이었고 이 느낌은 내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 날 오스카는 내게 배지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배지를 달고 다녔다.

나는 말씀에 “영웅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니파이, 아빈아다이, 엘마가 어떻게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말씀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친구

오스카와 그의 어머니가 그 모임에 참석할 것을 보았다. 나는 30년 전 그 놀라운 날이 기억났고 준비한 말씀 대신 청소년들에게 나의 개인적인 영웅에 대해 이야기했다. 복음을 나누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었던 한 용감한 소년, 그리고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던 소년 오스카 이탈리아가 바로 그 영웅이었다. ■

호르헤 테를레페센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시에라스 스테이크, 빌라 벨그라노 워드의 회원이다.

내 가 그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상의 옷깃에는 “저는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영감어린 말씀

저는 한 사도께서 간증을 얻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읽고 난 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었을 때, 간증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즉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 적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친구의 집으로 가져가 읽어 주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저의 간증을 들려 주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영이 임했던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놀랐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친구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읽기 시작했고 더 자주 기도를 드렸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방문할 때마다 영적인 생각과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와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월계반 회장단에서 저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에시카 플로렌시아 마르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서 스테이크 산토스 루가레스 와드

사랑으로 쓰인 글

저는 2005년 3월호에 실린 “콜롬비아의 성도들: 강인함의 모범”이라는 기사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글은 크나큰 사랑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의 큰 신앙과 콜롬비아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성도들의 멋진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해결해야 할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두 나라의 국민들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글은 거의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글은 작은 정원을 꾸미고 채소를 기르는 방법, 가정에 충실해지는 방법과 자립심을 늘리는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의심할 여지없이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충고는 그대로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얻고 또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저장해 둘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롭고 유용하며 시의적절한 글입니까!

올가 크립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지방부 자포로제 코르티츠키 지부

구주의 사랑

리아호나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영을 느꼈고 너무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전과 마찬가지로, 리아호나는 우리를 강화시켜주고 인도해 줍니다.

리아호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간증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탈리아 마르티네즈 드 모랄레스, 파나마 콘세프시온 지방부 불칸 지부

향상된 가정의 밤

우리 가족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우리를 인도해 줄 나침반으로 리아호나를 활용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밤은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어졌습니다.

가정의 밤을 하는 동안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회원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더욱 결합되게 해 줍니다.

일레이나 모르비오니 드 플루아스, 에쿠아도르 과야킬 동 스테이크 과야케네스 와드



리아호나의 그리스도, 해리슨 윌리엄슨

친구들



어둠에서 벗어나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파우스트 회장님은 신앙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 중 몇몇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가치있는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확인하건대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선택받은 세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가 7:8)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신앙의 초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관행의 짐 더미가 아닙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떠받쳐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무겁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들어 올려 주고 우리가 곤경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날개를 줍니다. 이사야가 약속했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두려움과 낙담 및 죄로 인해 생기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측면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갈 때 구주의 밝은 햇빛이 환하게 비추어 들어올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성한 계시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가 누구든 간에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속에는 인생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복음은 행복과 구주께서 하신 약속, 즉 “이 세상에서의 평화와 다음 세상에서의 영생”의 실현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

2002년 9월 8일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연설에서 발췌.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요나



다니엘

선지자를 따르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3:7)

린다 매글비



조지 알버트 스미스 회장이 교회 회장이었을 때 그는 교회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일과

식량과 의류를 기부하라고 가르쳤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스미스 회장은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보내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 회원들이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식량을 생산하고 의복을 기부했기 때문에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충분한 식량과 의복을 갖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그 식량과 의복을 보내기로 동의했고 이것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동과 식량 및 의복을 기부했다. 큰 도움이 필요한 때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회 회원들이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우리에게 살아 계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수수한 옷차림을 할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들만을 읽고 보고 들으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친절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전을 읽으라고 권고한다. 경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배운다. 우리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우리가 선지자를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선지자 인형

선지자 인형을 만들기 위해 친4쪽을 두꺼운 종이 위에

붙인다. 인형을 잘라내서 막대기에 하나씩 풀로 붙인다. 인형을 이용해 각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선지자를 따르라”(어린이 노래책, 110~111쪽)를 부른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 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와드 회원 서너 명을 초청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선지자들에 관한 패널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63쪽 참조) 물어볼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대해 미리 알려 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다. 경전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이 선지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의 생애 중 봉사하셨던 선지자로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이 선지자들 중 한 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던 경험을 나눈다. 지난번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권고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토론을 끝낼 때 어린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그들이 가정 생활 속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서 가졌던 느낌이나 경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선지자는 주님을 대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2. 게시판에 나의 복음 표준들 포스터를 붙인다. 지난번 연차대회 말씀을 담은 리아호나(2005년 11월호)에서 선지자나 사도의 말씀 중 네 가지를 고른다. 연사의 이름을 말하고 그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말씀에 담긴 원리들을 가르친다.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이 그 원리를 나의 복음 표준들 중 하나와 짝을 지어보게 한다. 선지자에 관한 노래나 찬송을 부르는 동안 어린이들이 콩주머니를 옆으로 돌리게 한다. 가끔씩 노래를 멈추고 콩주머니를 들고 있는 어린이에게 연차대회 말씀을 통해 배운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말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연차대회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복돋아 준다. ●



윌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성경 학자가 됨



윌포드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웨스트 하트포드에 있는 학교는 너무 비싸요!

내 친구를 위해 허드렛일을 해주면 네 숙식비를 내 줄 거야.



윌포드는 학교에 갔지만 심한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이 그리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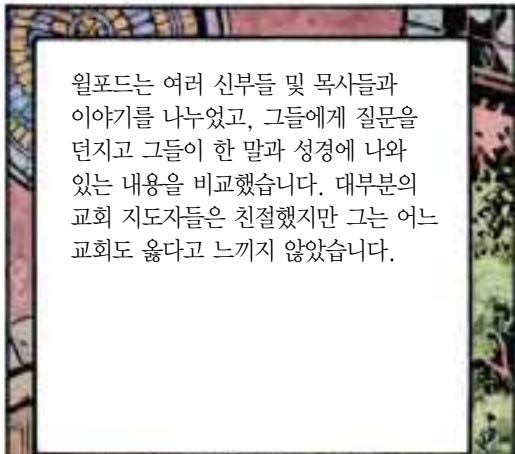


집 생각이 나는 것을 피하려고 윌포드는 공부에 더 집중해 바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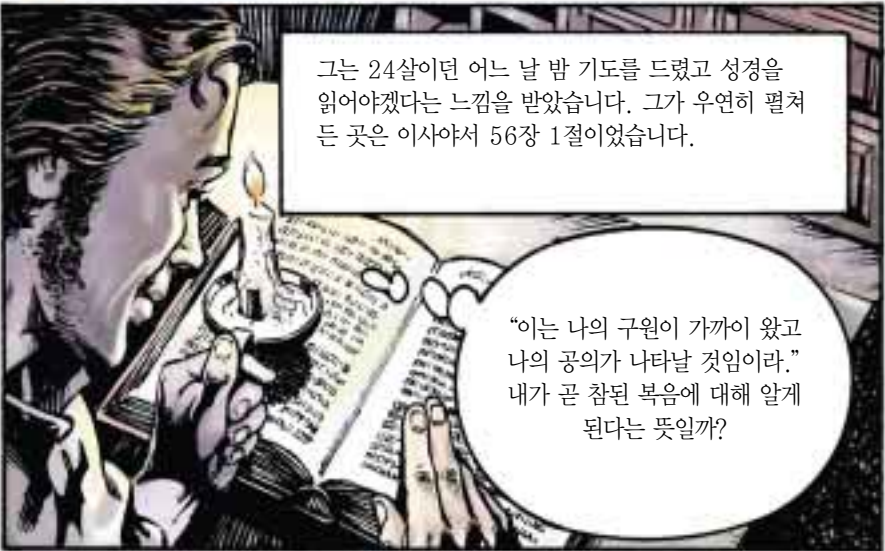


어느 날 월포드는 성경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었지만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성신을 따르고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월포드는 여러 신부들 및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한 말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친절했지만 그는 어느 교회도 옳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24살이던 어느 날 밤 기도를 드렸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우연히 펼쳐 든 곳은 이사야서 56장 1절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내가 곧 참된 복음에 대해 알게 된다는 뜻일까?



목사님, 왜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죠?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복음을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러한 영감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월포드는 뉴욕으로 이사했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레너드 제이 애링턴 편저 교회 회장들(1986), 118~125쪽에서 발췌.

더 큰 축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사도행전 20:35)

레이첼 시 머독
필자 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

“엄마! 엄마! 이번 주에는 방과 후에 아이스크림을 판대요!” 웨이드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며 차 안으로 뛰어 들었다. “저금통에서 1달러만 꺼내서 내일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돼요? 네?”

웨이드가 미니밴의 뒷좌석에서 야단법석을 떨자 엄마는 웃었다. “네 저금통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란다.” 하고 엄마는 말했다. “아이스크림을 사는 데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좋아요!” 하고 웨이드가 외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방으로 달려가 저금통에서 1달러를 꺼내 조심스럽게 책가방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다음 날 방과 후, 웨이드는 학생회 도우미들이 앉아있는 프런트 홀로 갔다. 탁자에는 각종 아이스크림의 사진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무엇을 골라야 할까? 초콜릿바, 오렌지바, 네티콘, 레드로켓, 초콜릿 조각들로 덮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중에서 무엇 골라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마침내 네티콘을 골라 껍질을 벗겼다.

홀에서 나와 차로 가는 도중에 그는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악기를 가지러 음악실로 갔다. 음악을 담당하고 계신 놀런 선생님이 의자들과 악보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웨이드,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하고 농담을 하면서 그는 아이스크림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힘든 하루 후에는 아이스크림이 정말 제격이지.” 웨이드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먹으려고 산 거예요.”



놀런 선생님은 우스꽝스럽게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할 수 없구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웃었다.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렴!”

웨이드는 손을 흔들어 선생님께 작별을 고하고 차가 있는 곳까지 뛰어 갔다. “엄마, 아이스크림 샀어요!”

그는 엄마한테 놀런 선생님과 그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쩌면 선생님은 진짜로 아이스크림이 드시고 싶었는지도 몰라.” 하고 웨이드는 생각했다.

“엄마, 내일 1달러를 더 써서 놀런 선생님께 아이스크림을 사 드려도 돼요?” 하고 그가 물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네 돈이란다, 웨이드.”

집에 도착하자마자 웨이드는 다시 방으로 뛰어갔다. 저금통에서 1달러를 또 꺼내 그의 책가방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드리면 놀런 선생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웨이드는 궁금해했다. 그는 무척 기대가 되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웨이드는 서둘러 책을 챙긴 후 홀을 지나 아이스크림 탁자로 갔다. 오늘 그는 어떤 맛을 사야 할지 머뭇거리지 않았다. 놀런 선생님은 네티콘이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콘 하나 주세요.” 하고 웨이드가 말했다.

이번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껍싸게 홀을 가로질러 음악실로 갔다. 예상했던 대로 놀런 선생님은 오늘도 의자들을 정리하고 계셨다. “또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러 왔구나!” 하고 선생님은 말했다.

이번에 웨이드는 놀런 선생님 앞으로 바로 다가갔다. “네, 맞아요!”하고 말하고는 놀런 선생님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렸다.

놀런 선생님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러기는 커녕, 그는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

“이거 정말 나 주는 거니?”하고 그는 물었다.

“네,”하고 웨이드가 말했다.

“값이 얼마니?”하고 놀런 선생님이 물었다.

“아, 아니에요,” 웨이드는 말했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 정말 고맙구나.”라고 말하며 놀런 선생님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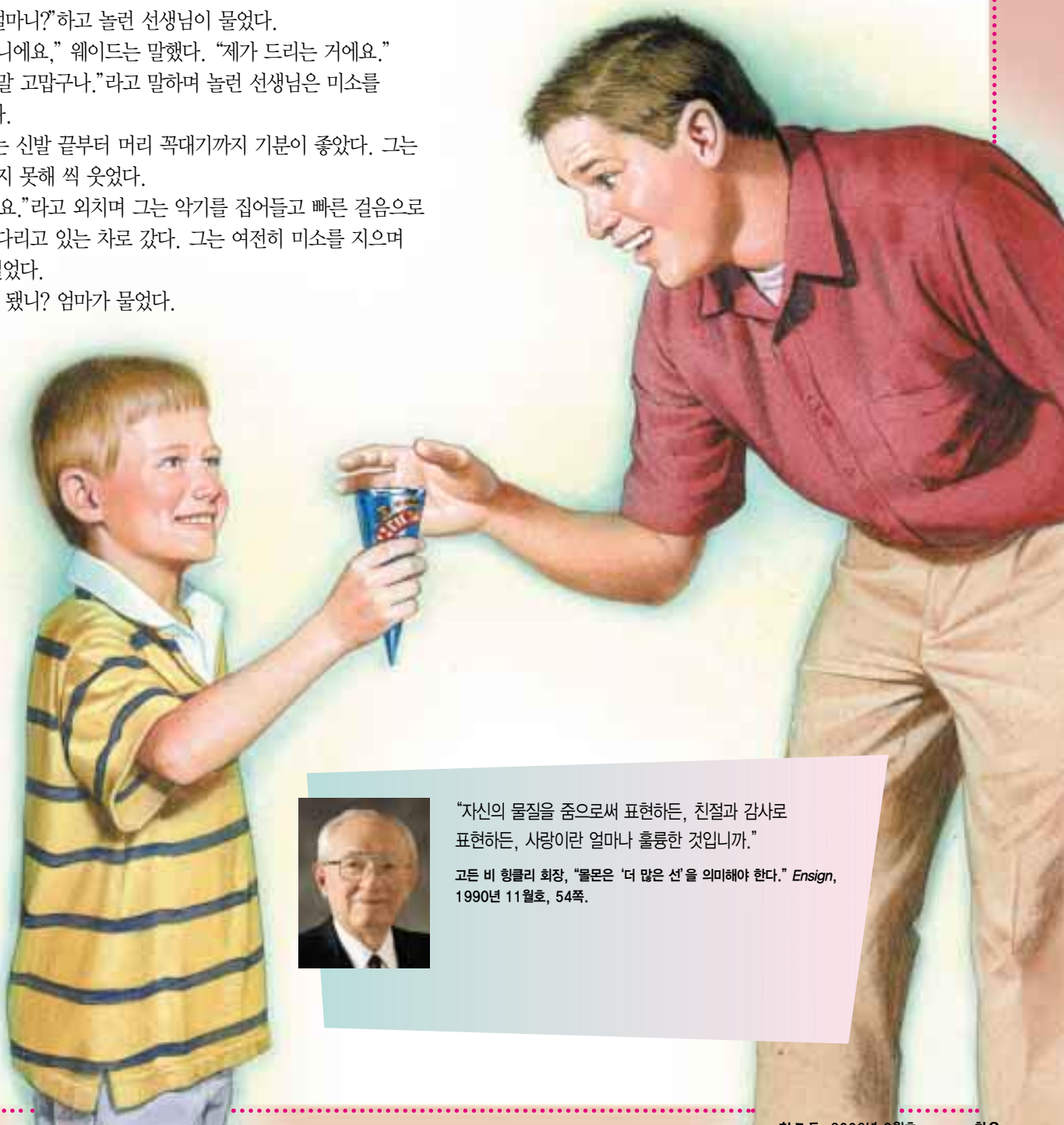
웨이드는 신발 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기분이 좋았다.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해 씩 웃었다.

“천만에요.”라고 외치며 그는 악기를 집어 들고 빠른 걸음으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갔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어떻게 됐니? 엄마가 물었다.

“아주 잘 됐어요!” 웨이드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있잖아요, 엄마? 놀런 선생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드리는 것이 내가 먹으려고 사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

레이첼 시 머독은 오하이오 신시내티 동 스테이크 이스트게이트 와드의 회원이다.



“자신의 물질을 줌으로써 표현하든, 친절과 감사로 표현하든, 사랑이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물론은 ‘더 많은 선’을 의미해야 한다.” *Ensign*, 1990년 11월호, 54쪽.

경전 인물



이 인형은 여러분이 경전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속의 소년들, 예를 들어 이삭, 사무엘, 다윗, 혹은 목동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형 그림을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색칠해서 오려낸 다음 막대 인형, 플란넬 보드 인형, 혹은 종이 봉투 인형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머리와 옷을 각각 다른 색으로 색칠하세요. ●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껴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막대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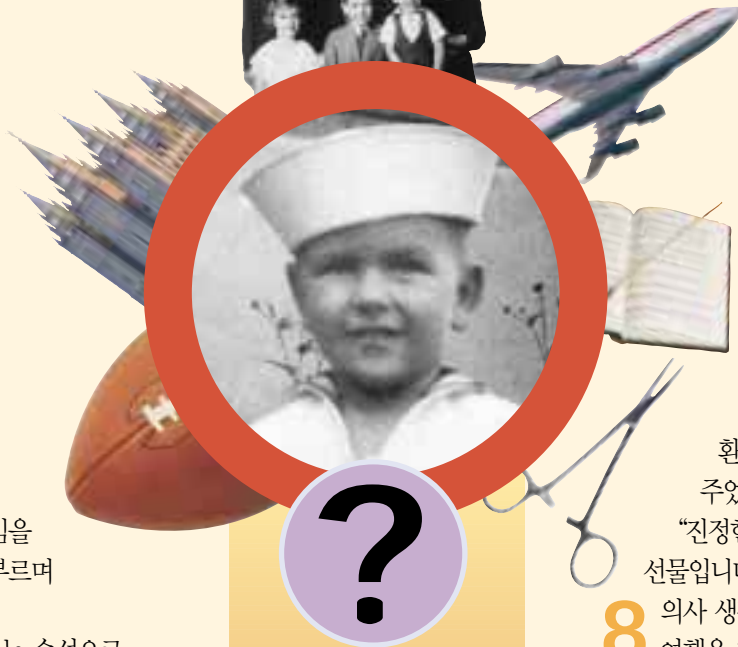


플란넬 보드 인형



종이 봉투 인형

누구일까요?



1 그의 부모님은 언제나 가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는 두 명의 누이와 남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게임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며 보내곤 했습니다.

2 그가 22살이었을 때 그는 수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3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서열상 세 번째입니다.

4 그는 수많은 시민 단체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심장 수술을 했고, 그 중에는 나중에 교회 회장이 된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음악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고 뮤지컬에서 연기를 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6 그는 미식축구를 포함한 학교의 여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수년 후 그는 그의 옛날 코치를 위해 수술했습니다.

7 수년 간의 의학 교육으로 그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치유의 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8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는 많은 여행을 했고 여행할 때 종종 가족 중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9 그는 대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하다가 그의 아내 댄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대표 소프라노 가수였고 그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1945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이분에 대한 힌트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선지자이고 선견자이며 계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널리 손을 내밀고 가르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십시오. 자주 간증을 나누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Standards of the Lord’s Standard-Bearers”, Ensign 1991년 8월호,

그의 짐은

산드라 돈 브림홀
실화를 바탕으로 함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모사이사서 24:15)

호스트 샤프프스가 14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기차표를 살 돈을 주고 식량을 사 오도록 시골로 보냈다. 샤프프스 가족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살았고, 식량이 귀해서 배급을 받아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 약간의 여분을 지닌 농부들에게 종종 식량을 사려고 했다.

두 시간 동안 기차로 여행한 호스트는 한 마을에 도착하여 집집마다 들르기 시작했다. 사십 채가 넘는 집에 들렀지만 식량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스트는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4.5킬로미터를 걸어서 다음 마을로 가기로 했다. 45분 정도를 걸으면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집에 들른 후 그는 한 농부를 만났고 이 농부는 그에게 감자 45킬로그램을 팔았다. 호스트는 그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바랐던 것은 기껏해야 약 반 킬로그램의 버터와 베이컨 몇 킬로그램 정도였다.

농부는 감자 푸대를 호스트의 어깨에 걸쳐 주었고 호스트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자신의 임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의 자신의 체중만큼이나 무게가 나가는 감자는 영양 부족의 소년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다. 쉬기 위해 짐을 길 옆에 내려놓는다면 짐을 다시 어깨에 들어 올리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림: 데이비드 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분을 신뢰하려는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을 얻게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3쪽



가벼워졌다

호스트가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문득 경전에 나와 있는 기도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엄마가 떠올랐다. 그는 물몬경에 나오는 힐렘 땅에 있던 엘마와 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했다.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되어 있던 이 니파이인들은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께 요청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짐을 가볍게 느끼도록 하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셨다. 호스트는 주께서 그의 짐도 가볍게 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스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즉시 어깨에서 짐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기차역까지 쉬지 않고 쉽게 걸을 수 있었다.

기차역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마을 경찰은 승객이 갖고 있는 식량을 모조리 압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감추려고 했지만 호스트는 45킬로그램이나 되는 감자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기차에 올랐을 때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그는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감자를 가져다 드릴 수 있었다.

그 감자는 어려운 시기에 호스트의 가족을 먹여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영 또한 강화시켜 주었다. 그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갖게 되었다.

● 산드라 돈 브림홀은 유타 주 웨스트조단 엘비 스테이크 엘비 제4와드의 회원이다.



구주의 사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초등회 본부 회장 웨일 시 란트 자매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김벌리 웹, 교회 잡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 중 하나는 “주 사랑 느껴요”(어린이 노래책, 42~43쪽)입니다. 첫 줄을 보면 “주 사랑 느껴요. 온 세상 가득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초등회 어린이들을 방문할 때 나는 그 사랑이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빛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경전을 읽을 때 특히 구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간증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열두 살인가 열세 살이었을 때 나만의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참된지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조셉 스미스가 숲 속에서 기도를 드렸을 때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몬경에서 모로나이가 진리의 증거를 얻기 위해 기도해 보라고 말하는 부분(모로나이서

10:3~5) 을 막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로나이가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증거를 느꼈습니다. 그 때부터 나는 나만의 간증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친절히 대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 줍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나는 그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못살게 굴었던 한 소녀와 친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년이 지나 내가 결혼한 후에 그녀는 나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대단한걸. 일도 잘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훌륭한 어머니잖아.”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녀에게 잘 대해 주었던 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 다르든, 머리 모양이 다르든, 걸음걸이가 다르든, 혹은 무언가를 하는 방법이 다르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왔든 다른 나라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고 그분들을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확고한 기반을 경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에 기반을 둘 때 우리는 구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 주님을 따라서
내 생명 바쳐요
주 사랑 느껴요
값 없이 주신 사랑
(어린이 노래책, 42~43쪽)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참된 교회입니다. 경전은 참됩니다. ●

남편 존과 함께.



세 살 때의 렌트 자매.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에리카 실비나 클레베츠타인 드 롤던

어느 날 저녁 몇 가지 볼일 때문에 나가기 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했고 집에 돌아온 후 고쳐 주겠다고 말했다. 집에 왔을 때 나는 일곱살 먹은 아들 메이코가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아들에게 할 일을 다 했느냐고 물었고 그는 소리 높여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고, 그는 “엄마, 저는 엄마한테 거짓말 못해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관심을 보이며 메이코에게 왜 거짓말을

할 수 없는지 물었다. 메이코는 완전히 확실한 어조로 “내가 물론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라고 대답했다.

나는 집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숙제를 살펴보았는데 숙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틀린 부분도 없었다. 나는 내 아들이 복음의 원리들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의 모범에 감사한다. ●

에리카 실비나 클레베츠타인 드 롤던은 아르헨티나 리오 쿠아르토 스테이크 로크 샤엔즈 페냐와드의 회원이다.

삽화: 다니엘라 아로 아구이요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기공식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

칠 십인 정원회의 회원이며, 중미 지역 회장인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는 2005년 10월 30일 일요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성전의 신축을 위해 첫 삽을 떴다.

존스 장로는 교리와 성약 109편 8절을 인용하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파나마 회원들의 의무는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전을 공부하고 가정의 밤을 가지며 꾸준히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칠십인인 호세 에이 가르시아 장로는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관해 말했다. 파나마에서 두 번째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던 도밍고 에스트리비 형제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파나마에 지부가 하나뿐이던 시절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지금은 일곱 개의 스테이크, 여덟 개의 지방부에 39,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

2002년 8월 23일에 발표된 이 성전은 파나마 운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파나마 파나마시티 스테이크 카르테나스 와드의 기존 집회소가 부분적으로 자리를 차지한 부지에 건축될 예정이다.

전날 허리케인 베타가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해안에 상륙했지만, 기공식 당일에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여 행사를 위해 아름다운 하늘이 열렸다. ■

새로운 임무를 위해 준비하는 신임 성전 회장들

35 명의 신임 성전 회장들과 부인들이 새로운 임무에 대한 준비 차 2005년 10월 18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례 성전 회장 훈련 모임에 참석했다. 다음의 성전 회장들과 메이트론들이 봉사를 시작했다. ■



온타리오 토론토 성전

네덜란드 헤이그

마커스 레인더스와 코벨리아 제이 레인더스

노스다코타 비스마르크

로버트 엘 홀리오크와 보니 비 홀리오크

독일 프라이베르크

만프레드 에이치 슈체와 헬가 디 슈체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브이 케네스 두틸과 베티 지 두틸

멕시코 멕시코시티

네드 비 루에세와 조앤 에스 루에세

몬테나 빌링스

로버트 엠 윌크스와 에스텔라 더블류 윌크스

브라질 캄피나스

아드에마르 다미아니와 왈키리아 비 다미아니

사모아 아피아

수아우파피아 페아와 탈라로아 엠 페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컬럼비아

앨비 알 에번스와 릭 지 에번스

솔트레이크

엠 리처드 워커와 캐슬린 에이치 워커

스위스 베른

웨인 엠 헨콕과 코니 에이 헨콕

스페인 마드리드

에프 버튼 하워드와 캐롤린 에이치 하워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안헬 제이 솔레와 에디스 레오노르 솔레

아이다호 보이시

해럴드 지 힐람과 캐롤 알 힐람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존 에이치 그로버그와 진 에스 그로버그

애리조나 스노우플레이크

래리 비 브루어와 라돈 브루어

에콰도르 과야킬

로버트 비 매리어트와 매리엔 에프 매리어트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에이치 앨드리지 길레스피와 버지니아 엘 길레스피

온타리오 토론토

해럴드 에프 워커와 모린 지 워커

워싱턴 디시

에프 멜빈 해먼드와 보니 에스 해먼드

유타 로간

테니스 이 시먼즈와 캐롤린 티 시먼즈

유타 마운트팀파노고스

로렌스 에스 클라크와 캐롤 더블류 클라크

유타 옥든

고든 티 와츠와 코니 더블류 와츠

유타 조던 리버

로버트 엘 백맨과 재닛 더블류 백맨

유터 버날

노먼 지 앵거스와 로우 앤 엠 앵거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스티븐 비 오브슨과 디시 오브슨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데이비드 이 소렌슨과 벨라 에이 소렌슨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다윈 비 크리스티슨과 샌드라 엘 크리스티슨

콜롬비아 보고타 로렌스 터 달 이세와 아이린 엠 달
 텍사스 샌안토니오
 에이 레이 오토와 쇼나 에스 오토
 파라과이 아순시온 리차드 알 조지와 지닌 조지
 피지 수바 리차드 더블류 웰즈와 헬렌 비 웰즈

하와이 코나 얼 이 벨로리아와 오드리 엘 벨로리아
 호주 시드니
 프랭크 에이치 휴스토운과 맥신 제이 휴스토운
 호주 애들레이드 찰스 파슨즈와 앤 엘 파슨즈

선지자 조셉의 생애를 다룬 새로운 조셉 스미스 영화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제 일회장단의 의견, 역사적으로 정확
 한 대본과 세트, 생생한 촬영 기술,
 영성을 지닌 배우들과 제작진, 이 모든 것
 들이 현재 템플 스퀘어의 레저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새로
 운 영화의 제작에 투입되었다.

The Testaments of One Fold and

One Shepherd(성약, 한 무리와 한 목자)
 와 *Legacy*(유산)의 뒤를 이은 새로운 영
 화는 또한 12월에 교회 사적지 및 성전
 경내에 있는 일부 방문자 센터에서 상영
 을 시작했다.

*Joseph Smith The Prophet of the
 Restoration*(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은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선지자 조셉 탄생
 200주년에 맞추어
 2005년 12월 17일 개
 봉했다.

선지자의 생애

상영 시간이 65분인
 이 영화는 버몬트 주에서
 보낸 조셉 스미스의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하여
 38세를 일기로 일리노이
 주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
 을 서술한다. 이 영화는
 회원들과 그 외 사람들이
 인격자 조셉 스미스를 알
 도록 도와 준다고 영화
 제작자인 론 먼스 형제는
 말했다.

시청각부 집행 책임자
 보조인 칠십인 정원회의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는
 선지자 조셉의 인격, 고

난 및 성취를 묘사하는 이 영화가 관객들
 에게 “선지자 조셉에 관해 더 심도 있게
 배우도록 해서 그들이 약한 간증이 아닌
 강한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돋아 준
 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를 보는 모든 사
 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
 다. 선지자 조셉에 대해 알 때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관점으로 선지
 자 조셉 스미스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
 지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로서의 장엄함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생활과 그가 견뎌야 했던 시련에 대해 보
 여 주고자 합니다.”라고 시청각부 관리
 책임자인 라일 샤모 형제는 말했다.

먼스 형제는 조셉 스미스의 모범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셉이 역경에 대처하
 고 인생의 사명을 성취했던 방법은 모든
 삶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조셉은 참으로 헌신적이었지만 항상
 공평한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먼스 형제는 말했다. “그의 삶에는 처음
 부터 많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진리의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
 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역

선지자 역을 맡을 연기자를 찾기 위해
 성전 합당성을 지닌 회원을 전국적으로 광
 범위하게 물색한 끝에, 최근의 교회 영화
The Restoration(회복)에서 성인 조셉 역
 을 맡았던 네이던 미첼이 선지자 조셉 역
 에 다시 선정되었다. 두 명의 다른 배우가
 일곱 살과 십대의 조셉 역을 맡았다.

역을 배정받은 후 미첼 형제는 찬송가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장)에 있는 “세상은 요셉을 다시 알리



네이던 미첼이 최근 개봉된 영화 *Joseph Smith The Prophet of the Restoration*에서 조셉 스미스를 연기하고 있다.

라(Millions shall know 'Brother Joseph' again)"라는 가사가 떠올랐다.

“저는 이 영화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선지자 조셉을 알도록 하는 방편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 자신이 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미첼 형제는 말했다.

그는 책과 조셉의 일지 및 문서를 읽음으로써, 또한 브리검 영 대학교의 교회 역사 교수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조셉 스미스의 인격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선지자 조셉에 관한 제 느낌은 아주 특별해서 그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관객들도 그러한 깨달음이나 계시를 얻어 조셉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주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의 간증을 정말

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화 제작

먼스 형제는 주님께서 이 영화의 제작을 염두에 두셨다고 말하며, 때맞춰 눈이 내렸다거나 비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장면이 비로 인해 향상되었던 일 등 여러 가지 예를 언급했다.

촬영 과정 내내 영이 함께 했다고 먼스 형제는 말했다. 그는 주님께서 배우들과 제작진들의 재능을 강화해 주신 것이 명백히 보였던 순간들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먼스 형제는 수백 명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작에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이 영화의 감독인 그레이 쿡은 주요 시나리오 작가였다. 티 시 크리스텐슨 형제가 공동 감독 겸 촬영 감독이었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 교회

작곡가 메릴 젠슨과 알렌 카드 또한 그들의 재능을 합쳐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먼스 형제는 전했다.

영화는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LDS 모션 픽처스튜디오(LDS Motion Picture Studio)에서 촬영했으며, 일리노이 주 나부와 뉴욕 주에 있는 교회 사적지, 캐나다에 있는 역사 마을, 미시간 주 미시시피 강 부근에서 야외 촬영을 했다.

영화는 2006년에 다섯 개 언어로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영화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www.lds.org/events에서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다. 전화로는 1-866-LDS-TIKS (1-866-537-8457, 미국 내 무료 전화) 또는 570-0080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지역 시내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

사진 촬영: 매트 라이더



촬영은 유타의 LDS 모션 픽처 스튜디오(LDS Motion Picture Studio) 및 교회의 여러 사적지에서 야외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허리케인 율마, 신기록 세우다

2005년 10월 중순, 북미 및 중미 대륙의 일부가 몇 차례 닥친 전 대미문의 기록적인 2005년 대서양 허리케인의 타격에서 복구되고 있을 때, 기록적인 세 번째의 5등급 허리케인이 서부 대서양과 동부 카리브해 지역을 완전히 휩쓸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스탠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회원들과 율마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의 초기 필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

육지에 상륙하면서 3등급으로 약화된 허리케인 율마는 36시간 이상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거세게 몰아쳤다. 그 후 폭풍우는 쿠바 서부를 지나 끝으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멕시코와 플로리다의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안전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멕시코에서는 통신망 상태가 나

빠져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회원들과 연락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플로리다와 멕시코에서 교회의 구호 노력은 허리케인 율마가 지나간 후 더욱 증가되었다. 지역 복지 위원회는 올랜도에 있는 감독의 창고에서 제공된 식품, 식수 및 기타 비상 공급품의 분배를 감독했다. 교회는 멕시코 메리다에서 트럭 몇 대 분량의 비상 구호품을 구입해 칸쿤 및 코수멜 지역에서 회원들과 그 외 사람들에게 배부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이 입은 피해로 인해 물품의 운송이 지연되었다. 스테이크 회장들은 이들 지역에서의 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지역에 있는 회원들과 이웃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멕시코에서는 수백 명의 회원 가족들이

심한 피해로 인해 집을 옮겨야 했다. 플로리다 남부에서는 약 20여 회원 가족들의 집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칸쿤에서는 여러 채의 교회 집회소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멕시코에서는 100개 이상의 임시 대피소를 세워 약 22,000명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큰 홍수가 칸쿤, 플라야델카르멘 및 코수멜을 덮쳤다. 칸쿤 인구의 약 30~40퍼센트가 폭풍우로 인해 거주지를 훼손당했으며, 칸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된 채 지내야 할 처지이다.

같은 주말에 허리케인 율마가 쿠바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폭우와 홍수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폭풍의 진행 경로에 있던 6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했다. 2005년 7월 허리케인 데니스가 지나갔던 쿠바의 동부 지역 또한 율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폭풍과 홍수 피해는 플로리다 키즈 제

사진 촬영: 멕시코 남 지역 공보 사무실 제공



허리케인 율마가 멕시코 칸쿤에 있는 이 집회소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도뿐만 아니라 남부 플로리다 반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많은 집회소가 폭풍과 비로 인해 손상되었다. 남부 플로리다에 있는 여러 집회소의 조경과 위성 수신기가 손상되었다. 350만 명 이상의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해 물이 1.52미터까지 불어났다. 플로리다에서는 폭풍과 관련하여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삶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가운데 스테이크 회장들은 재난이 지나간 현재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며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

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번역과

니콜 시모어, 교회 잡지

교회 자료가 제공되는 언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표시이다.(교리와 성약 112:1) 5개 언어가 추가되어, 통역자들은 2005년 10월 연차 대회를 80 개 언어로 제공했다. 몰

몬경 번역은 77개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아호나는 50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회 번역과는 추가 언어로 교회 모임을 통역하고 자료를 번역하는 데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 번역과는 글로 된 내용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번역, 그리고 말씀을 다른 언어로 전하는 통역,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한다.

통역자와 번역자의 역할

번역팀의 일원을 선정할 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번역과 책임자인 제프리 시 베이스 형제는 교회 잡지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번역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사라고 느끼며, 그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리와 성약 9편 9절을 인용했다. “내게서 네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성스러운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 이 성구는 번역과의 지침이라고 베이스 형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번역 기

술이다. 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번역자 역할이 나오지 검토자 역할이 나오지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받는다. 번역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도착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영어를 제2언어로 구사한다.

번역사와 마찬가지로 통역사도 도착어와 영어 두 언어 모두에 정통해야 한다. 대부분의 통역사들이 도착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반면, 영어가 모국어인데 선교 사업 때 도착어를 배운 사람도 있다.

언어 자료의 처리

교회 자료를 어떤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에 관한 지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주어진다. 2005년 11월 현재, 교회는 190개 언어를 승인했으며 그 중 104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번역과는 범세계적 번역 계획(Worldwide Translation Plan)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계획은 몇 가지 부분 또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언어를 몇 명의 회원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단계에서 교회 자료가 제작된다.

범세계적 번역 계획에 따라 특정 언어로 자료들을 받기 위한 요청은 지역 회장단이 한다. “회장단은 지역의 언어적 필요 사항을 살펴보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추천을 합니다.”라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교회 자료의 번역은 도착어에 익숙한 여러 사람들을 활용한 여러 차례의 검토를 요하는 긴 과정이다. 한 사람 이상이 번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와 언어 사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경전이 번역될 경우, 검토 과정은 더욱 확대된다. 경전 번역에 있어서도 지역 회장단의 요청 및 번역 승인이라는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진다.

사진 촬영: 주디스 나우엔도어



사모아 회원들은 통역 팀의 노력 덕분에 모국어로 연차 대회 모임을 시청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경전 번역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인도 하에 이루어집니다.”라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우리가 작업해서 사도들께 간단히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책임 맡는 것입니다.”

경전 번역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번역과는 번역 과정에 걸쳐 여러 차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총관리 역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출판된 기타 교회 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영어로 된 원문이 번역되고, 그 후 솔트레이크시티 또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번역자 및 검토자 팀에서 번역이 완성될 때까지 의견을 교환하며 검토하는 작업이 계속된다. 도착어 팀은 일반적으로 빠듯한 마감일에 맞추어 작업한다.

베이스 형제는 그 과정이 단순히 영어를 도착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번역은 일종의 예술인 한편, 매우 세부적인 과정이며 많은 기술, 그리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언어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을 바꾸는 것이 문제

가 아닙니다. 의미, 감정, 문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쇄된 자료들 외에도 교회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프로그램 중 많은 자료들도 번역되고 있다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이러한 자료에는 도움말 화면, 유의 사항 및 양식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사이트의 번역은 번역 작업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든다.

통역에 도움을 주는 기술

일부 모임을 위해서는 번역된 자료가 사전에 준비된다. 그러나 연사가 준비된 자료에서 벗어나거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통역자가 동시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통역자들이 모국에서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방송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통역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 통역자가 있다고 합시다.”라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고속 통신 회선은 그 통역자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모임을 통역하도

록 해 주며, 통역은 위성을 통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전송되어 영상과 단지 1초의 시차를 두고 다른 방에 있는 회중들에게 동시에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통역자로 이루어진 팀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통역한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통역자들은 컨퍼런스 센터 내에 있는 부스에서 작업하며, 전세계에 있는 대회 참석자들은 모국어로 모임을 들을 수 있다.

앞으로 퍼져 나가는 복음의 기쁜 소식

베이스 형제는 번역과가 관여하는 일이 교리와 성약에 묘사되어 있다고 말했다. “무엇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그들 위에 내리는 보혜사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에 성임된 자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방언과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0:11)

“우리는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돕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특권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베이스 형제는 말했다. “그렇게 되도록 도우며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여러 언어로 퍼져 나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의 동반과 더불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교회 회원들에게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시합니다.”라고 제일회장단 제 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영은 언어보다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Heirs to the Kingdom of God,” *Ensign*, 1995년 7월호, 63쪽) ■



물문경은 현재 77개 언어로 완역되었다.

2006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3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선지자를 따르라”를 참조한다.

1. 간단한 의상이나 표지를 사용하여 다섯 명의 어린이가 모세, 침례 요한, 아빈아다이, 조셉 스미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역을 연기하도록 한다. 그들에게 다음 말씀 중 하나를 읽게 하고, 다른 어린이들은 그들이 각각 어느 선지자를 나타내는지 알아맞춰 보게 한다. 정확히 맞으면, “주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나요?”라고 묻는다. 모세: “나는 구약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백성을 속박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내 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아빈아다이: “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노아 왕에게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조셉 스미스: “나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전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

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라는 성구를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나는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의 계획에서 중심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영감을 받아 전세계 곳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린이들이 선지자 한 명을 알아맞힐 때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선지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가르친다고 간증한다.

2. 현재의 제일회장단 및 사도들의 사진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이 그들의 모습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리아호나 5월호 및 11월호 또는 www.lds.org에 있음) 각 사진 뒷면에 그 사람에 관한 한두 문장을 적는다. (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교회의 다른 어느 지도자보다도 많은 성전을 헌납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36세에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출판업계에서 일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변호사로 일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뉴잉글랜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새들을 실물같이 조각하고 색칠했다. 엘 톰 페리 장로는 노턴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는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에 주에 있는 기업들에서 일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심장 전문의였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 및 유타 주 대법원 판사였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사업가였으며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조셉 비 워스런 장로는 이글 스카우트(역주: 21개 이상의 공로 기장을 받은 최우수 보이 스카우트)이다. 그는 대학에서 미식 축구 선수였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핵 과학자였다. 그는 아르헨티나 북 선교부를 감리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제트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는 영국 런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 또한 칠레에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대학 교수 및 리스 대학 [현재는 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었다.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성장했고, 그곳에서 가족이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조종사이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대학 교수 및 아이다호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었다.) 몇몇 어린이들에게 사진을 들고 그 지도자의 성명과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게 한다. 사진으로 알아맞히기 게임을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59~160쪽 참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권세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간증한다. 교리와 성약 84편 36절을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연차 대회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귀 기울이도록 격려한다.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이명우 자매 가족

“저번에 일요일에 교회 다녀와서 집에 있는데 승수가 “할머니,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재미있고 좋았어.”라고 해줬더니 꺄꺄 웃더라고.”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대화도 없었겠죠.”

고부 간인 이명우 자매와 김명옥 자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연신 웃음을 자아낸다. 두 자매가 나누는 이야기 속 주인공은 이 집의 막내 아들, 막내 손자 한승수 형제다. 초등학교생일 때 친구 손에 이끌려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 할머니와 어머니 손을 잡고 갈 수 있게 된 것은 작년 여름. 한 형제가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자마자 어머니 이명우 자매가, 몇 달 후에 할머니 김명옥 자매도 “손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인삼차를 앞에 두고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이라는 끈으로 매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명우 자매는 3년 전에 아들이 ‘선교 사업’이란 것을 선언했을 때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난감했죠. 다른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갑자기 선교 사업이란 것을 한다니... 그래도 저도 당시에 성당에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 아니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선교사 훈련원 입소를 몇 주 앞 둔 한 형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어머니에게 종교 교육원에 같이 다니자고 제안했다. 의외로 쉽게 따라 나선 이명우 자매는 아들이 선교 사업을 하러 간 후에도 2년 동안 계속 종교 교육원에 다녔다고 한다.

“승수가 선교 사업을 가기 전부터 승수랑 친한 저희 와드 자매님이 종교 교육원에 계속 같이 가자고 연락하고, 데리러 오시고 하셨어요.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아셔야죠.” 하면서 2년 동안 매주 그렇게 하시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제가 침례 받고 교회 나오는 데 그 자매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른 종교에서 이 교회에 대해 안 좋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도 대체 왜 그런가 하는 궁금증을 풀고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경을 왜 있고 조셉 스미스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종교 교육원 내용이 저한테 쉽지 않았어요. 와드 자매님이 데리러 오시니 계속 가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수가 귀환하기 석 달 전부터는 중랑 와드에 일요일 모임을 참석하면서 더 공부했죠.”

조금씩 조금씩 이명우 자매의 마음이 움직이고 방향이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때, 선교 사업을 마친 아들 한 형제가 귀환했고, 한 달 뒤인 6월 29일 모자는 하얀 침례복을 차려 입고 행복한 침례식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권유를 받아들인 할머니의 침례식도 몇 달 후에 손자 한 형제의 손을 빌려 이루어졌다.

복음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승수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을 보면, 집에서는 어리게만 봤는데 언제 저렇게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승수를 보면 마음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자란 것 같고, 점점 커져가는 것이 느껴지죠.” 복음이 선사한 첫 번째 선물은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고, 이것은 가족이 한번 더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게 만들고 있었다.

“승수가 저를 닮아 집에서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 오면 같이 교회 이야기, 회원들 이야기 하면서 더 많이 대화를 하니깐 집안 분위기도 편해지고 좋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생각이 다 다른 것인데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



이명우 자매의 침례식 날 가족이 함께했다. 맨 왼쪽부터 한승수 형제의 할머니 김명옥 자매, 한승수 형제, 어머니 이명우 자매, 아버지 장승택 형제

부산 선교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전 10시 30분.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그 시간에 선교사들은 현관 앞에서 고개 숙여 기도를 한다. 아멘 소리와 함께 고개를 든 이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온 마음을 다해 외친다.

“인 바이트 올 소울스 언투 크라이스트! 부산 선교부 파이팅! (*Invite All Souls Unto Christ-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함*)”

고요한 아침 하늘에, 맑은 선교사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으며 매일을 시작하는 부산 선교부를 소개한다.

송평중 회장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이 새 봄을 재촉하는 아름다운 절기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한국이 주님께 헌납된 지 50년이 되어 기념 행사를 했던 것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50년 역사를 시작하는 올해, 저희 부산 선교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부산 선교부 지역에는 약 천삼백팔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교회 회원 수와 거의 같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주님께 인도한다면, 교회의 회원 수는 두 배가 됩니다.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한다!” 저희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과 저는 올해에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참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하며 모든 회원들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성실한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음을 간증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선교사들이 세상에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됨을 또한 간증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OYM하는 선교사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다

부산 선교부 선교사들이 매일 아침 목청껏 소리치는 구호는 곧 부산 선교부와 선교사들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기 위해 OYM(open your mouth-입을 열다)이라는 것을 한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회복된 복음을 나누고자 말을 거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잠깐 급한 일이 있을 때 탄 택시 안에서, 녹색불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 보도에 잠깐 멈추었을 때도 짧은 몇 분, 몇 초 동안 선교사들은 어김없이 영어 회화 전단지들을 건네고, 물문경과 구원의 계획을 소개한다. 선교사들은 주로 이 OYM을 통하여 복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가족 영어 회화를 하고자 하는 가족을 찾고 있다. 송평종 회장은 "우리 선교사들이 실제로 100명에게 OYM하면 그 중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두 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선교부 회장 보조로 봉사하는 노성훈 장로는 "저희는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숙소를 나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저희가 지나는 어느 곳이나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다는 신앙과 소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입을 엽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준비된 그분의 자녀들에게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라며 20개월 동안 매일 해온 OYM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부산 선교부의 시작

한국 땅에 두 번째로 세워진 선교부인 부산 선교부는 1975년 7월 1일에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선교 사업의 깃발

을 꽂았다. 당시 95명의 선교사들은 광주, 대구, 부산, 부산 서, 전주 지방부와 제주 전도소를 관할했는데, 11년 뒤 대전 선교부가 설립되면서 관할 지역은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로 축소되었고, 현재 선교부가 관할하는 조직은 대구, 마산,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제주 지방부로 발전하였다.

부산 선교부 2세 선교사들

부산 선교부에는 총 111명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이곳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이른바 '2세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 중 마산 스테이크 마산, 창원 와드에서 봉사하는 강혜선 자매 선교사와 차지아 자매 선교사는 부모님과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모녀 선교사 - 강혜선 자매

부녀 선교사 - 차지아 자매

"저희 부모님들은 70년대에 이곳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신 선배 선교사들이십니다. 부모님과 같은 선교부에서 봉사하다보니 저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었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서 젊은 시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구에서 봉사할 때 만난 어떤 자매님은 저희 강혜선 자매의 어머니가 가르치시고 차지아 자매의 아버지께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지금 저희가 하는 작은 노력들이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한번 더 다짐하게 됩니다."



왼쪽부터 차지아 자매 선교사, 강혜선 자매 선교사

경상도 땅에 부는 변화의 바람-회원 선교 사업

부산 선교부의 자랑거리를 묻자, 송평종 회장은 서슴없이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초석인 부산 지역 회원들은 선교 사업에 대한 강한 소망과 관심이 있습니다. 회원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을 보며, 진정한 부산 선교부는 이곳 성도 여러분이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선교사와 회원이 하나가 되어 선교 사업에 전념하는 여러 지역 중, 천년 고도 경주와 가장 뜨거운 도시로 불리는 대구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행복한 변화를 소개한다.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본 저희를 항상 본 사람처럼 반겨 주시는 것이 낯설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해맑은 선교사들의 입으로 전해들은 가족의 행복을 얻고자 교회에 간 장재숙 자매는 회원들의 도움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난 1월 8일에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고민할 때 복음 원리반에서 회원들이 자신들이 개종할 때 겪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느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안에 큰 마음을 가진 "가족 같은" 분위기의 경주 지부는 지난 6개월 사이 성찬식 참석수가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

"워낙 개종자가 많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시면 저희는 소중하게 반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성찬식에 스무 명 정도 참석했는데 요즘은 평균 40명 정도의 회원이 오십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신앙이 커지면서 공과 내용이나 회원들이 주고 받는 대화도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지부회장단, 보조조직 회장단도 조직이 되어서 모두들

표준 건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더 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갈 때 점점 더 기쁜 마음이 커진다는 박기호 회장의 말 속에서 경주 지부의 발전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청남 회장 이섭우 형제, 스테이크 청녀 회장 홍미희 자매, 세미나리 교사 차지혜 자매, 청녀 회장단 최은희 자매, 전부경 자매, 복음 원리반 교사 성민경 자매, 차대환 감독, 선교책임자 프랭크 형제, 장로정원회장 장승태 형제, 상호부조회장단 최민실 자매, 스틸 장로, 크리스텐슨 장로, 정수연 자매 선교사, 소렌슨 자매 선교사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모이는 이들은 와드 협의 평의회가 아니라 선교 협의 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인원이다. 각 보조조직 역원들은 모두 와드 선교사들. 이들과 신권 지도자, 전임 선교사들은 상인 와드 선교 사업을 위해 하나가 되어 일한다.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찬송가 소리가 교회를 가득 메우면서 모두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다. 모임의 맨 처음 순서는 항상 선교책임자의 영적인 메시지다. “야곱서 4:13. 우리가 살아가

면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성신과 함께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성신과 함께하도록 우리 와드 선교사들은 방문하고, 안식일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와드에 침례가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와드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프랭크 형제의 간증에 뒤이어 와드 선교사들은 새로운 회원들의 현황을 보고한다. 선교 책임자의 입에서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지난 주에 출석했는지, 근황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와 친한지,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 누가 도울 것인지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진다.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똑같이 “음...”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변함이 없다.

상인 와드 성찬식에 참석하는 평균 구도자 10명, 지난 해 침례받은 31명 중 회원이 소개한 경우 14명, 올 해 1월에 침례받은 사람은 한 가족을 포함하여 7명, 모든 신회원 토론은 와드 선교사들이, 구도자 복음 토론은 저녁 늦게라도 회원과 함께, 계명에 따라 생활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구도자들은 감독단이 방문, 거의 모든 구도자들이 받는 회원들의 식

사 초대, 토요일에는 감독단이 구도자와 함께 교회에서 농구와 탁구를, 매주 초등학교 활동과 청소년 상호향상모임, 스카우트 활동 운영 ...

이 모든 일을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고 이끄는 차대환 감독은 기꺼이 참여하는 회원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선교 사업을 위해 회원들에게 특별한 목표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One by One(2년 전에 부산 선교부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펼쳤던 회원 선교 사업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길전도와 선교사 음악회로 구성.)에서 회원들이 직접 길전도를 해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부탁하는 복음 토론에 참여하면서 직접 경험해서 얻은 자신감과 기쁨이 회원들을 도운 것 같습니다. 선교 책임자가 영적으로 모임을 잘 준비하고 돕기도 했고요. 화요일에 교회에 들어서면 항상 무엇인가 가득한 느낌입니다.”

“지도자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단합하여 이 사업에 함께 전념할 때 하늘이 움직일 것을 믿으십시오.”(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



침례식에 모인 경주 지부 회원들.



상인 와드 선교 협의 모임.

경향 신문, 술 마시지 않는 직장인 배동철 회장을 보도하다

세상은 배동철 회장의 이름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18년 장수한 ‘비주류’ 홍보맨 배동철씨.”

현재 서울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배동철 회장의 기사가 2006년 1월 23일자 경향신문 매거진 엑스 1면에 소개되었다. ‘대한민국 기업체 홍보맨이 어떻게 술 한 방울 안마시고 장수할 수 있을까? 술 권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주류보다 경쟁력있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인 배동철을 주목했다.

이 기사는 술자리에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배 회장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주) 옥션에서 7년째 홍보이사로 재직하며 2004년에 마케팅 대상을 받는 등 인정된 경쟁력의 근원을 “소신껏 신념대로 사는 것”으로 보도했다. 2남 2녀를 둔 배동철 회장과 아내 박순병 자매는 현재 가족과 함께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 참석한다.

처치 뉴스, 한국인 개척자 박병규 형제 보도하다

2005년 12월 10일 처치 뉴스 14면에 “한국인 개척자, 신앙의 친구들을 따름”이란 제목으로 박병규 형제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한국 교회 개척자들이라 불리우는 김호직, 이호남 형제들과 함께 1950년대 개종하여 광주 스테이크 초대 회장과 부산 선교부 회장, 최초의 한국인 서울 성전 회장, 교회 교육 기구 지역 책임자, 지역 대표, 한국 선교사 훈련원 회장 등을 역임한 박병규 형제를 소개했다. 더불어 한국 교회 개척자로서 지금의 한국 교회 발전을 감사해하는 박 형제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교회에 들어왔을 당시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이 땅에 이렇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신앙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박병규 형제는 현재 수원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고, 아내 이영지 자매 사이에 아들 삼형제와 열 명의 손자녀를 두었다.



2006년 1월 23일 경향신문 매거진 엑스 1면. 여러 개의 술잔 사이에서 물병을 들고 웃는 배동철 회장의 사진이 인상적이다.



2005년 12월 10일 처치뉴스 14면에 게재된 박병규 형제의 기사. 번역된 기사 전문은 교회 한국어 홈페이지 지역 단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리산 -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

한국 전역에서 모인 청년 지도자들과 종교 교육원 교사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고원용 장로는 2006년 1월 20일과 21일, 속리산 아람 호텔에서 제3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을 했다. 각 스테이크 / 지방부 독신 의장과 학생회 임원 70여 명은 첫날, 중부 종교교육원 학생회에서 준비한 친해지기 활동과 무도회에 참여하였는데, 모임 직후에 마련한 평가 모임에서 실제로 효과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튿날에는 독신 회원들이 주로 참석하는 모임인 무도회, 종교교육원 수업, 청년 대회의 현재 모습과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와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감리자로서 모임에 함께했던 고원용 장로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독신 회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라며 시작한 맺음 말씀에서 교회의 발전이 독신 회원들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며 “전신갑주를 입고 올 해를 계명에 따르는 해로 삼으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전국에서 온 청년 지도자들에게 환영 말하는 고원용 장로.

한라산 - 부산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백록담이 보이는 화구륜 코스까지 오를 수 있는 한라산 동쪽의 초입 성판악 휴게소 앞. 쌀쌀한 날씨였지만 앳된 얼굴들에는 하나같이 기대감과 긴장감이 뜨겁게 교차하고 있었다. “어디서 왔습니까?” 백 명이 넘는 청소년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등산객이 물었다. “부산에서요!”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한라산 등반은 그렇게 우렁찬 외침과 함께 시작되었다.

등반을 시작한 지 두 시간이 흘렀을까. 처음의 우렁찬 목소리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허벅지까지 빠지도록 쌓인 눈과 추위를 막으려 입은 두꺼운 옷이 자꾸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저 많은 학

생들이 정상까지 다녀오는 건 무리”라고 얘기하던 성판악 대피소 직원들과 버스 기사들의 말이 자꾸 역원들

의 머릿 속에서 맴돌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청남, 청녀들을 독려했다. 아이들의 배낭을 세 개나 짊어지고, 건강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조기 하산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역원들의 이마엔 땀이 마를 새가 없었다. 정상과 가까워질수록 거센 바람은 눈보라를 뿌려댔다. 한 발 한 발 비록 느린 걸음이었지만 등반을 시작하고 여섯 시간이 지나서야 한라산은 부산에서 온 후기 성도 청소년들을 정상을 밟도록 허락했다. 머리카락에 고드름이 맺히고 추위에 옷몸조차 지을 수 없었지만 스스로 자랑스럽고 기뻐서 모두의 눈빛은 쌓인 눈보다 더 환한 빛을 내었다.

“처음엔 대회에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회비도 비싸고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 참석한 지금 저는 무척 큰 행복을 느낍니다. 특히 한라산 등반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자연을 만드신 주님의 위대하심은 물론이고 힘들게 등반을 해서 결국엔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승영에 이르고자 하는 각오도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눈보라 치는 한라산을 바라봤을 때 저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청소년들의 겨울 안에 어떤 행복과 힘이 있었는지 송성아 자매의 간증이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전 권우 기자)



한라산에 쌓인 눈보다 더 환한 웃음을 짓는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



한라산 정상에서 선 부산 스테이크 청남, 청녀들

교회, 한국에 휠체어 600대 기증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회는 한국 지역에 휠체어 600대를 기증했다. 그 중 500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한 적십자에 기증되었다. 지난 1월 23일 대한적십자사 본부에서는 북아시아 지역회장단 제2보좌 고원용 장로와 한국 관리 본부, 한국 공보 위원회와 적십자사 관련 임원들이 모여 휠체어 전달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고원용 장로는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라며 교회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취지와 현황을 설명했다. 나머지 휠체어 100대는 각 스테이크/지방부의 요청에 따라 배분되어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와 회원들에게 기증되었다.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과 신권 지도자들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에 담양에 위치한 ‘창평 우리 병원’에 휠체어 다섯 대를 기증했다.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이 운영하는 이 병원은 노인 치매와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이 날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은 휠체어를 전달하고 환우

들의 쾌유를 비는 마술쇼, 합창, 합주, 한국 무용 등 아름다운 공연으로 봉사했다. 병원장인 정한 형제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최진 기자, 허용환 형제 기사 제공)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휠체어 기증식. 왼쪽부터 성기환 재난구조팀장, 공보위원회 여론 주도층 관계 보조 허용환 형제, 정혜숙 재난구호 봉사본부장, 공보 선교사 판즈워스 부부, 이김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고원용 장로, 공보위원회 위원장 최석구 형제, 한국 관리 본부 대표 최윤환 형제, 공보위원회 자문 위원 조현석 형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보물찾기-기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간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그분의 사랑과 도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 청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 주세요. 청년, 청년 회장단과 부모님들께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문: 기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간증

사진: 밝은 표정으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

기한: 3월 25일까지

청년 대회에서 만난 부부 이야기

지금 함께 지내는 영원한 동반자를 청년 대회를 통해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부를 보신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

다면 여러분 지역의 리아호나 기자들이 직접 도와 드립니다.

부문: 배우자를 만나게 된 이야기와 간증

사진: 가족 사진 1장, 청년 대회 사진 1장

기한: 4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

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14명/해외 2명



구동희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대전 선교부



윤애란 자매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서울 선교부



금선자 자매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대전 선교부



정진아 자매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서울 선교부



김성봉 장로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대전 선교부



정태영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류성면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대전 선교부



최미영 자매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서울 선교부



문진영 장로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서울 선교부



최보람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대전 선교부



박기연 자매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대전 선교부



한경아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부산 선교부



변정희 자매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대전 선교부



배상재 장로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매시추세츠
보스톤 선교부



신정인 자매
부산 스테이크
신정 와드
서울 선교부



오민환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정 와드
뉴욕 남 선교부

서울 북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영어 캠프

서울 북 스테이크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산 힐스 청소년 수련원에서 동계 청소년 영어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최근 영어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착안하여 서울 북 스테이크에서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모임이었는데, 구도자 54명을 포함한 청년, 청년 138명은 선교사들과 청소년 역원들,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셀러스 서울 선교부 회장, 김미남 형제, 로버트 할리 형제, 한민근 형제 등 여러 초빙 강사의 세미나와 선교사들이 함께한 Experience English(12개 종류의 활동을 각 조별로 돌아가며 체험한 프로그램), 장기자랑, 체육 활동, 영어 연극 발표 등 다채로운 활동을 즐기며 영어에 대한 더 큰 재미와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김미남 형제가 고정 출연하는 SBS 라디오 '이숙영의 파워 FM'에 영어 캠프 현장이 생중계되어 청소년 네 명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이숙희 기자)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제3회 광주 스테이크 예술제 및 합창제
- 광주 종교교육원
세미나리 퀴즈 대회 및 졸업식
- 서울 서 종교교육원
세미나리 퀴즈 대회
- 제주 지방부
김종균 성전 회장단과 함께한 노년의 모임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감독: 홍세일(전임: 윤성봉)